

석사학위논문

초등학교 미술교과 과정을 통한
회화표현에 대한 연구

- 초등 5, 6학년 중심으로 -

지도교수 박 성 진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 전공

양 영 심

2006년 8월

석사학위논문

초등학교 미술교과 과정을 통한
회화표현에 대한 연구

- 초등 5, 6학년 중심으로 -

지도교수 박 성 진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 전공

양 영 심

2006년 8월


초등학교 미술교과 과정을 통한 회화표현에 대한 연구

- 초등 5, 6학년 중심으로 -

지도교수 박 성 진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6년 5월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 교육전공

제출자 양 영 심

양 영 심의 교육학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06년 6월

심사위원 장	인
심 사 위 원	인
심 사 위 원	인

초등학교 미술교과 과정을 통한 회화 표현에 대한 연구
- 5, 6학년 중심으로 -

양 영 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 전공

지도교수 박 성 진

미술은 내면의 감정이나 느낌, 생각 등을 시각적인 조형 표현을 통하여 창조, 개발되어져 고유한 예술의 영역으로 자리 잡는다. 그리고 그 시대의 문화를 반영하여 과거를 재현하고 현재와 미래에 창조와 발전을 부여한다. 따라서 문화의 급변화속에서 현대인들에게 주어진 시대적 요구는 그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창의성 개발과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이다. 이러한 변화속에서 미술교육은 아동들에게 미술 표현에 대한 관심과 미래 사회에 대처할 수 있는 통합적이고 조화로운 인격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나 초등학교 아동들은 일반적으로 일정한 표현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른바 개념적인 그림을 그리는 경향이 많다. 특히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의 아동들은 정신적 신체적 성장에 비해 표현능력의 저하로 인하여 의욕상실을 겪는다. 개념화된 사실주의의 고정관념으로 잠재되어 있는 무한한 개성과 창의성을 무더지게 한다. 그래서 초등학교 고학년 미술과 교육과정에서의 미술 교과 교육은 “다양한 미술 활동을 통하여 주변 세계의 아름다움을 느끼며 향유할 수 있는 심미적인 태도와 상상력, 창의성, 비판적인 사고력을 길러주고, 아울러 미술 문화를 이해하며 계승, 발전시킬 수 있다.”¹⁾ 라는 그 목적이 상실되어 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하여 이론과 실체가 조화되어 이 시기 아동들의 흥미와 욕구에 부응되는 표현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를 두고자 한다.

본 연구는 여러 문헌과 기타 관련 자료의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전반적인 아동미술교육의 의의와 미술교육에 있어서의 회화의 특성을 살펴보고, 아동화의 발달단계의 여러 연구를 서술해본다. 그리고 본 연구의 주요 대상인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 회화의 특성과 활

1) 교육인적자원부, 초등학교 5학년 교사용 지도서, 2002, p.6

동영역과 그 지도 방향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 과정을 통하여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의 아동들은 비교적 주관이 뚜렷해지고 논리적인 사고를 하게 되고, 자아의식이 강해지며 주변 환경이나 사물들에 대한 시선이 객관적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미술 활동에 있어서 머릿속에 있는 사물의 본 모습들이 겉으로 표현되는 과정에서의 일치하지 않는 현상이 미술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리게 하고 창작 의욕을 둔화시키게 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순수한 미술교육의 목적을 바르게 이해하고, 무엇보다도 조형 활동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회화 영역을 다양하게 활용함으로써 아동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회화의 소재의 폭을 넓혀 미술교과 과정이 독립된 교과목으로서가 아니라 모든 생활의 가장 기본임을 연구를 통하여 강조하였다.

현대 사회의 급격한 발전과 과학 문명의 발달 속에서도 고유한 전통을 지켜온 미적 안목과 함께 새로운 문화를 조화롭게 창조시켜 우리들만의 독특한 문화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아동들에게 꾸준한 지도가 필요함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앞으로 고학년 시기의 아동들에게 좀 더 다양하고 풍부한 미술 활동을 유지시켜, 새로움에 대한 거부감을 줄여 즐겁고 흥미로운 관심을 공유하는 기회를 마련 해 줄 수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본 논문은 2006년 5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위원회에 제출된 석사학위 논문임

목 차

<국문초록>

I. 서론	1
II. 아동 미술교육의 의의	4
1. 아동미술 교육의 의의	4
2. 미술 교육에 있어서 회화의 특성	8
3.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 회화의 특성	11
III. 초등학교 고학년의 다양한 회화 표현	15
1. 아동화의 발달단계의 여러 연구	15
2. 그리기 활동의 영역과 지도 방향	29
3. 교과서의 회화 영역에 나타난 소재 분석	40
IV. 결론	51
참고 문헌	53
ABSTRACT	55

표 목 차

<표1> 제7차 미술교과서 5학년 단원 구성표	44
<표2> 제7차 미술교과서 6학년 단원 구성표	45
<표3> 교과서 참고작품의 소재분석	49
<표4> 교과서 회화작품의 주요 소재에 따른 분류	49

그림 목차

<그림1> 난화기의 그림들	18
<그림2> 전도식기 - 5세(여)	19
<그림3> 도식기 - 7세(남)	19
<그림4> 여명기 - 2학년(여)	20
<그림5> 의사실기 - 시각형, 청소년의 그림	20
<그림6> 초보적인 끄적거림의 종류 20가지	21
<그림7> 선의 교차	22
<그림8> 비오는 밤 - 7세(여)	32
<그림9> 화분 - 6세(여)	33
<그림10> 저녁호수 - 6세(여)	34
<그림11> 오리 - 7(여)	34
<그림12> 과수원 - 6세(남)	35
<그림13> 단풍나무 - 8세(남)	36
<그림14> 저녁노을 - 6세(남)	37
<그림15> 물고기 - 6세(여)	38
<그림16> 아빠 - 5세(남)	39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미술교육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훈련에 의한 단순한 기술의 습득이나 지식을 쌓아두는 저장의 수단이 아니라 미적 정서의 함양이며, 어느 한 분야의 전문가로서의 미술인 육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잠재하고 있는 품성과 소질, 창의성을 기르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순수한 목적이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로 갈수록 희미해져간다. 고학년 시기의 아동들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많은 성장이 이루어진다. 이 시기의 아동들은 비교적 주관이 뚜렷해지고 논리적인 사고를 하게 되고 자아의식이 강해지며 주변 환경이나 사물들에 대한 시선이 객관적으로 변화한다. 따라서 미술 활동에 있어서 머릿속에 있는 사물의 본 모습들이 겉으로 표현되는 과정에서의 일치하지 않는 현상이 미술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리게 하고 창작 의욕을 둔화시킨다.

아동들이 미술시간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이유는 실기능력과 감상능력에 차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화화 표현은 실로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유아나 저학년의 경우에는 미술학자들의 발달단계이론에 대체적으로 일치한다. 그러나 고학년으로 갈수록 실기능력과 감상능력이 발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아동들이 많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고학년 표현양식의 측면에서 볼 때 대체로 ‘의사실기’²⁾적인 표현의 단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로웬펠드(Victor Lowenfeld)는 “아동의 표현발달단계 중 초등학교 고학년의 단계인 의사실기를 미술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표현기능이 섬세해지며, 미술에 대한 자아의식이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굳어지는 시기”³⁾로 보았다.

미술 교과 교육은 다양한 미술 활동을 통하여 주변세계의 아름다움을 느끼며 향유 할 수 있는 심미적인 태도와 상상력, 창의성, 비판적인 사고력을 길러 주고, 아울러 미술 문화를 이해하며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전인적인 인간을 육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초등학교에서의 미술과 교육은 미술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동미술의 목적을 바르게 이해하고 회화표현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고학년 아동들의 그리기 영역 활동을 중심으로 미술교과 교육 과정의 교과서와 아동화 발달단계의 여러 연구와 표현유형을 바탕으로 그 내용과 특성, 지도 등을 살펴보고 아동들의 회화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고 적극적인 수업을 유도하고 이 시기에 호려지는 학생들의 미술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유지시켜 초등 미술교육에서 활용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의 주요 내용과 방법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첫째, 문헌과 관련 자료의 이론적 배경으로 아동미술교육의 목적을 살펴본다.

둘째, 문헌을 바탕으로 회화지도의 특성과 의의를 살펴보았다.

2) 의사실기(擬寫實期): The Pseude-Naturalistic Stage, 합리적인 표현(11~13세) 이 시기의 아이들은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교에 해당하며, 많은 어린이들에게 이 시기는 그들이 받는 마지막 형식적인 학교 미술 교육인 경우가 많다.

3) 로웬펠드, 브리테인, 서울대학교 미술교육연구회 역, 인간을 위한 미술교육, 서울: 미진사, 1993, p.193

셋째, 문헌과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 회화의 특성을 살펴 보았다.

넷째, 문헌과 기타 자료를 배경으로 회화표현 영역을 전개해보았다.

다섯째, 문헌과 기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아동화의 발달단계의 여러 연구를 서술하였다.

여섯째, 문헌과 교과 지도서를 참고로 하여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고학년 사이의 회화의 소재와 영역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문헌 분석 연구로서 논의 주제를 뒷받침하는 여러 가지 문헌과 자료를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II. 아동 미술교육의 목적과 특성 및 의의

여러 문헌과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아동미술교육의 특성 및 지도, 의의를 아래와 같이 서술하여 아동미술교육의 목적과 특성을 바르게 이해한다.

1. 아동미술 교육의 의의

아동미술 교육의 목적은 미적 경험의 여러 가지 활동에서 연유된다.

미적인 감각과 그 가치를 표현하는 미적 경험은 아동의 인간성과 인격의 발달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그 지도와 내용이 설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미술교육의 목적은 “아동의 성장 발달을 고무시키고 나아가 바람직한 인간성을 가진 인격자의 육성에 적절하게 부합되어야 하는 것이어야 한다.”⁴⁾

아동미술교육의 목적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보면 아동기에 있어서 미술교육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아동들은 미술교육을 통하여 여러 가지 표현 활동과 감상 활동에서 자극되고 체득되어져가는 과정에서 조형미에 대한 의식을 발달시킨다.

그리고 미술교육은 그 자체를 곧 정서교육이라고 일컫는다. 그것은 인간의 희, 노, 애, 락과 같은 감정을 순화시켜 보다 폭 넓은 정신적인 발달을 도모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동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감정을 곱게 성장시켜 남을 생각할 줄 알고 협동할 줄 아는 원만한 인격체의 육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인간관계교육이 필요하며 이것은 곧 정서의 폭넓은 배양에서 달성되는 것이다. 따라서 폭 넓은

4) 최재영 ,아동 미술 활동의 지도와 이해, 서울: 창지사, 2001, p.40

정서를 기르게 된다.

다음으로는 21세기의 빠른 정보화 사회 속에서 교육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창조 의식을 배양하는데 그 중요한 역할을 볼 수 있다.

창조 의식이란 이미 알고 있는 경험과 느낌의 바탕 위에 새로운 것을 생각해 내거나 만들어 내는 힘의 근원이다. “창조성이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기 속에 가두어 두는 아니라 외부로 표출함으로써 육성되는 것”⁵⁾이다.

따라서 미술 활동은 수동적인 수용의 활동이 아니라 스스로 드러내는 적극적인 활동으로 이루어지게 한다.

또한 아동의 성장과정에서 사물이나 현상에 대한 많은 경험을 통하여 그것을 인식하고 지각하게 된다. 따라서 성장과 새로운 사물 현상은 계속되고 자신의 시각을 수정하게 하고 반응을 조직하게하며 환경에 적응하도록 하는 것이다. 아동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어떤 새로운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나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지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많은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주어야 한다.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미술 활동은 지적 성장의 근원을 마련해 주며 인식과 이해의 폭을 넓혀 주는 기회를 제공해 줌으로써 아동의 폭 넓은 정서를 기르는데 큰 도움이 된다.

미술교육은 개인과 사회의 교량적 역할을 하며 사회성발달에 기여한다. 사회에서는 원만한 인간관계를 구성하고 협동적으로 살기 위한 개인의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이 능력은 자기와 타인과의 사이를 엮어주는 책임이라는 매개의 발달을 도모하는 길이다.

아동의 미술 활동, 특히 공동 작업에서는 이러한 책임 의식과 전체와의 상호 관련 작용을 이해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며 사회성의 발달을 도모하는 것이다.

인간은 감각을 통하여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지각하며 발달해 간다. 아동들에게 흥미를 유발시키고 경험을 통하여 더욱 더 사물을 이해하고 조작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어야 한다.

여러 가지 조형 활동과 환경을 제공하여 주어 시각적 , 촉각적 경험을 증대시

5) 최재영, 상계서, p.43

키고 다양한 제제와 조형 경험 및 재료를 제공함으로써 아동들로 하여금 물질을 분석해 보고 분류해 볼 수 있는 능력과 물질이 갖는 여러 가지 특성을 이해하고 시각과 촉각의 인식력을 높일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 하다.

이러한 활동은 바로 신체의 균형 있는 발육을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훈련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로서 아동 미술 교육의 또 하나 목적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미술활동의 다양한 체험으로 재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준다. 아동들에게는 재료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제공하여 보다 다양하고 창조적인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폭넓은 재료를 접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재료 선택에 대한 보다 자유로운 의식을 갖도록 해주어야 한다. 오늘날의 현대회화에서 보여주고 있는 다양한 표현재료와 기법이 전통적인 것을 뛰어넘어 새롭고 획기적인 양식으로 창조 의식을 충족시켜 주고 또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 세계의 보편적인 추세라고 한다.

이와 같이 아동들에게 다양한 재료를 접할 수 있도록 하여 재료에 대한 거부감이나 획일적인 재료 선택의 의식을 바꾸어 줌으로써 자유로운 표현 감각이 몸에 익혀질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그것은 곧 아동들에게 보다 더 다양한 사고 능력을 넓혀주고 키워주는 길이 되며, 나아가서는 표현 활동에 있어서 재료의 다양성과 자유성을 길러 주는 것이며 창조적인 의식을 키워주는 계기가 된다는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그리고 자아의식의 혼돈으로 인하여 자칫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쉬운 현대사회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개성의 신장을 돕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개성은 그가 속한 사회에서 이질적이고 튀는 생각을 가진 인간으로서의 뜻이 아니라, 현실 사회에서 독특한 기능을 발휘하여 지금까지 쌓여져 온 기성 문화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다.

미술 활동은 이러한 개성의 신장에 효과적인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다. 미술 활동은 “그 자체가 아동 각자의 개성을 필요로 하는 것이며 그것으로 인한 가치가 존중되어 지는 것이다.”⁶⁾

이렇듯 미술교육은 아동들의 정신적, 신체적으로 모든 면에서 중요한 자리 잡

6) 최재영, 상계서 p.52

고 있어 그 가치가 남다르다.

또 한편에서는 미술교육의 목적을 두 가지 측면에서 정의를 내린다. 미술 전문가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을 가르치는 전문 교육적 개념과 미술 교육을 통하여 인격발달을 돕는다는 간접적, 교양적 성격의 미술교육이 있다. 아동 미술 교육은 그 후자에 속하는 것으로 미적 표현 및 감상을 통하여 개인의 미적 정서와 창의성의 발달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아동 미술 교육은 초등학교 교육이므로 다양한 미적 경험을 시켜서 미술에 관한 관심과 미술적 심성을 개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아동미술교육 목적인 미적 정서는 정신 함양을 말하며 창의성은 ‘미를 찾는 기능(관찰)’, ‘미를 구성하는 기능(구성)’, ‘미를 감상하는 기능(감상)’등의 심미적 기능의 향상으로 구체화시킬 수 있다. 그러면 그 목적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본다.

아동 미술교육의 목적을 “심미적 기능의 향상과 정서함양”⁷⁾의 목적으로 구분하여 각각 이렇게 설명이 되어진다.

첫째로, 심미적 기능의 향상은 가시적인 완성 작품을 사실적으로 잘 표현한다는 것과는 다르다. 미술 활동의 전 과정을 통하여 아동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모든 아동이 지닌 미적 기능을 향상시키며 이를 통하여 긍정적인 교육효과를 이끌어 내는 것이다. 그 목적을 함양하는 데는 관찰, 구성, 표현, 감상의 훈련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둘째, 아동미술 교육은 미적 기능을 향상시켜주며 동시에 아동의 정서함양에 도움이 된다. 미적 기능의 향상은 실기가 진행되는 과정서 획득되는 직접적이고 일차적인 결실이며 정신 함양은 서로 방향을 달리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서로 강한 끈으로 얽혀 있기도 하다. 서로 성격은 달라도 분리하여 생각할 수도 없고 상호 보완적이다. 따라서 미적 기능의 향상이 적절하게 이루어 질 때 바른 정서 함양을 기대 할 수 있다. 그리고 정서함양은 실기에 집중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심리적 안정, 실기 작품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표현의 기쁨, 실기 작품이 완성되었을 때 얻어지는 성취감, 실기력이 향상됨에 따라 생기는 자신감, 색과 형을 조합시키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조화와 질서 감각, 다양한 실기를 통해 형성되

7) 문형준, 아동 미술 실기 교실, 미진사, 서울:1995, p.12

는 다양성, 많은 작품을 제작하고 감상하는 가운데 형성되는 풍성함 등을 통하여 형성 된다.

이러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모여서 정서함양의 열매를 만들어 낸다. 바른 정서함양은 안정, 기쁨, 성취감, 자신감, 조화, 질서 감각, 다양성, 풍성함 등의 요소들이 적절하게 향상될 때에 얻어진다.

따라서 아동미술교육은 미적 감각을 기르고, 정서성을 풍부하게 하며, 창의성을 기르고, 독창성을 기르며, 표현력을 기르고, 잠재력을 개발시키고, 재료 지배능력을 기르며, 합리적 생활태도를 기르는데 그 목적을 둔다.

또한 제 7차 교육과정에서는 “미술 활동을 통하여 표현 및 감상 능력을 기르고, 창의성을 계발하며, 심미적인 태도를 함양 한다.”⁸⁾라고 제시되어 있다. 아동미술교육은 전인적인 인간을 육성하는데 미적 가치관을 두고 있다. 즉 미술을 통한 조화롭고 질서 있는 인격형성을 그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아동 미술 교육은 각각의 개인마다 개성을 존중하며 오감을 통한 그 표현과 미적인 감성의 영역을 확대해 주어야 한다.

이렇듯 아동 미술교육은 정신적, 신체적인 모든 면의 바람직한 성장에 가장 큰 도움을 준다. 따라서 올바른 아동 미술 교육은 단지 교육의 수단으로써 아니라 보다 건전하고 건강한 인격 형성에 그 가치와 목적을 두어야 할 것이다.

2. 미술 교육에 있어서 회화 특성

표현활동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본질적인 면을 가지고 있는 회화(그리기) 영역을 중심으로 그 특성과 의의를 살펴본다. 그리기는 아동들에게 있어서 자신을 표현하는 재능으로 나타내어진다. 정확한 언어의 전달로 자신을 표현하기 전에 가장 먼저 아동들의 내면과 자아를 표현하는 최초의 수단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이러한 표현의 시작은 그 사고와 감정을 전달하는 것은 그리는 과정에서 더 발전되고 더욱 분명 해진다. 이러한 발전은 인격 형성과 완성이라는 교육의

8) 교육인적자원부, 초등학교 6학년 교사용 지도서, 2002, p. 7

목적에 부응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처럼 인간 교육의 교량적 수단으로 미술 교육에 있어서 회화의 중요성은 그 자리가 매우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서 미술교육에 있어서 회화가 갖는 특성과 그 지도 및 의의를 문헌과 관련 자료에 바탕을 두고 살펴보고자 한다.

“회화는 다른 예술에 비하여 친하기 쉬운 예술이다. 그러나 회화를 제작하거나 감상할 경우에 있어서는 결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 회화의 표현에는 온갖 형식이 있는 것이며 또 재료나 기법도 수 없이 많기 때문이다. 근대 회화는 사실이라는 것에 구애되지 않고 극히 자유롭게 화면을 구성해 나간다. 그것은 자연에서 인간이 독립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는 것이다.”⁹⁾

그리기 활동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회화의 조형적 방법에 의하여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은 그리는 활동을 통하여 그들의 생각이나 느낌 또는 희망이나 갈등, 욕구 등을 표출해 내는 특성을 갖는다.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자기를 표현하며 또한 자기의 감정을 전달하는 수단으로 이용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즐기며 성취감을 맛보게 되는 것이다.

아동의 그리기에서 주로 다루어지는 것은 생활 주변에서 보고 느낀 것, 체험한 것, 생각한 것 등이나 음악을 듣거나 이야기를 들은 것, 그림책을 본 것 등에서 연상되는 것들의 내용이 되기도 한다. 미지의 세계나 장래의 꿈 등을 상상하여 그리는 상상화나 체험을 바탕으로 한 경험화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회화지도가 갖는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회화가 갖는 특성과 아동화에 나타난 특징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회화의 특성으로는 표현의 평면성, 표현 요소, 표현 재료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회화는 평면적인 표현이다. 평면 표현은 3차원의 세계를 2차원의 평면에 표현하는 것이다. 평면 표현은 입체의 세계를 2차원인 평면으로 나타내려다 보며 어

9) 김삼량, 미술교육개론, 미진사, 서울:1992, p.167

평계 차원을 전환할 것인가의 문제가 대두되고 거기에 많은 표현 방법들이 동원되는 것이다. 3차원을 2차원의 평면에 사실적으로 표현하는데서 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선, 명암, 색채, 원근법 등을 사용한 공간 표현이 발달했다.

회화를 표현하는 데는 표현 요소가 있다. 그것은 선, 명암, 색채, 원근법, 농담, 양감, 질감 등의 조형적 요소이다.

회화는 표현 재료의 특수성을 갖는다. 어린이들의 그림을 그리려고 할 때 간단한 재료와 용구만 있으면 다양한 표현이 가능하고 다른 영역에 비하여 보다 용이하다. 하지만 그러한 재료의 특수성에 대하여 무지할 때 아무리 훌륭한 아이디어나 착상을 소유하고 있어도 그것을 밖으로 표현할 수 없으며 동시에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 회화는 평면성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반면에 재료의 제약을 상당히 받을 수도 있다. 회화표현에는 주로 붓, 종이, 크레파스, 크레용, 파스텔, 분필, 펜, 콩테, 목탄, 먹과 기타 다른 종류 등의 재료가 사용된다.

다음으로는 아동화 표현의 특징으로는 “어른의 표현과는 달리 그림에서 그들만의 공간 표현 방법”¹⁰⁾을 갖는다. 아동의 특징적 표현은 기저선, 투시적 표현, 공존화와 전개도식 표현, 중앙 원근법적 표현, 중첩 표현 등으로 나타난다.

인간은 태어나서 손에 잡을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표현 활동 중에서 먼저 낙서와 같은 그리기부터 시작한다. 이러한 활동은 회화 지도의 필요성을 시사해 주고, 나아가 미술 교육에서 목적 하는 바를 달성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회화 표현은 아동들이 몰두 하는 모든 미술 활동 중에서 가장 널리 퍼져 있다.

먼저 아동들이 가장 먼저 사용했던 ‘선’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게 되면, 다양한 선의 경험을 통하여 특징을 알게 되고, 그러한 선 그림의 표현을 통하여 그들이 미처 알지 못했던 느낌이나 생각, 상상력 등을 경험하게 된다. ‘선’ 하나만을 가지고 대부분의 형태가 가능하며, 곡선, 직선을 변형시킴으로써 다양한 ‘변화’와 ‘통일’을 경험하게 되고, 선 그림 표현을 통하여 그들은 물결치는 것과 같은 ‘리듬감’ 혹은 ‘운동감’을 맛볼 수 있다. 또한 선 그림은 즐거운 미술 활동으로서 틀에

10) 김동영 외2, 미술 교육학 개론, 교육 과학사, 서울:1994 p.157

박힌 형으로부터 벗어나게 해 줌과 동시에 다른 미술 활동에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익힐 수 있게 한다.

또한, 회화 지도에서 ‘색’은 아동들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제공한다.

그리고, 회화 지도가 갖는 역할은 화면 구성력을 통하여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기초적인 경험을 기를 수 있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회화지도에서 아동들에게 회화 활동에 쓰이는 도구, 매체, 기법의 기초적인 경험을 제공한다.

또한 직관적인 지성의 육성으로 인간적인 기초를 다지며, 인간의 본능적인 조형감각과 미의식을 일깨워 주며, 사물에 의한 직접적인 체험의 생명력을 갖게 되며, 창조 활동은 적극적인 인간을 형성하는 바탕이 된다. 이러한 모든 점에서 회화지도는 그 가치와 의의를 갖는다.

위와 같이 살펴본 바와 같이 회화지도의 역할은 관찰력과 창조성, 상상력, 색채 감각, 미적 정서, 조화로운 미적 안목 등을 길러 주어 교육 활동의 목표로서 미술 교육의 가치를 생각해 볼 수 있다.



3.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 회화의 특성

이 시기의 아동들은 연령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미술 활동에 의해 표현이 성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고학년 아동들은 표현의 혼란을 맞게 된다. 미술 활동의 흥미 상실과 많은 좌절감을 느끼며 미술적 표현의 정체기를 겪는다.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에는 “일반적인 특징으로 눈에 보이는 객관적 사실에 집착하면서 상상과 감정, 순수함과 같은 것이 서서히 사라지면서, 창의성이 결핍되기 쉽다. 학년이 높아지면서 한층 더 이러한 경향은 증대된다. 그 이유 중에 하나로 정신의 발달, 신체의 급격한 발달, 그리고 청소년기 초기로서의 사춘기적인 심리적 동요가 모든 사물에 대해 차츰 보편적이면서, 객관적인 시각을 갖게 된다.”¹¹⁾ 눈에 보이는 객관적 사실에 집착하면서 상상과 감정, 순수함과 같은 것이 서서히 사라지는 것이다.

11) 교육인적자원부(2002), 전계서 p.13

고학년 아동은 심리적인 동요에 의한 표현의 위기를 들 수 있다. 아동들은 사물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게 되면서, 관찰된 그대로 나타내야 한다는 심리적인 부담감과 어려움을 갖게 된다. 눈에 순응하는 불협화와 자기비판이 묘화에 대한 의욕을 둔화시켜버리는 것이다. 그 결과 언어나 다른 영역으로 관심을 돌리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심리적 고충은 미술 표현의 욕구를 충동을 억제, 둔화시키고 중학년까지 왕성했던 미술 표현의 욕구와 기능의 발달을 수평 상태로 머무는 현상을 초래하게 된다.

또한 재료 사용에 있어서도 교과서 내용 그대로의 재료만을 사용하거나 한정된 재료만의 표현 기법을 익히는데 그치고 참고 작품과 유사한 작품만을 제작하게 한다든지 가르치는 사람의 수준에 맞춰 평가함으로써 감수성이 풍부한 어린이들의 표현활동에 대한 자신감을 잃게 하여 자칫 어렵고 거리가 먼 교과 과목으로 인식되어 저 버리기도 한다. 초등학교 고학년에 접어든 아동은 대부분 사실적인 그림을 그리며, “피카소(Picasso)의 그림보다 밀레(Millet)의 만종에 더욱 매력을 느낀다. 자신의 그림이 실제 사물과 닮지 않았으면 곧바로 못 그렸다거나 포기하는 상태로 급변하는 시기이다.”¹²⁾ 실제로 이시기의 아동의 그림을 지도하는 데는 교사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실제 현장에서 보며, 고학년의 경우 회화 영역에서 개인차가 현저하게 드러난다. 원근감과 명암을 표현하는 아동이 있는가 하면 아직까지 도식기의 형태에 머물러 있는 아동이 있다. 고학년 시기에 생겨나는 이해의 폭이 넓어지면서 사실적인 그림 위주의 그림을 선호하게 되며, 그 기준에 맞추어 자신의 그림에 대해 잘 그리고 못 그리고를 판단하게 되는 것이다. 즉 점점 미술에 대해 자신이 없어지고 싫어하게 되는 상태에 놓인다.

로웬펠트는 이 시기를 의사실기라 하여 발달단계에 있어 가장 흥미로운 시기이지만, 미술교육에서는 가장 노력의 요하는 시기라고 하였다. 이 연령 대는 사춘기 이전이거나 사춘기에 접어드는 시기로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으로 큰 변화와 큰 개인차를 가져오는 때이다. 어른의 이야기보다는 또래의 말에 더욱 의존하고 따른다. 고학년이라는 위치도 막연한 우월감을 갖게 한다. 중학교라는 새로운 학년으로의 진입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을 느낀다. 어린이라 불리기에 어색한 시점

12) 김 정, 아동의 미술교육 연구, 창지사, 1989, p.119

에 와 있다.

이 시기는 정서와 강한 감정을 표현하기 시작하고, 성인의 말을 더 이상 절대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어린아이도 아니며 그렇다고 성인은 더욱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기 시작하는 때이다. 따라서 이 발달단계에서 미술의 역할은 분명해진다. 그것은 어린이의 개성 발달을 도와주고 정서와 긴장감을 표출하도록 사회적으로 허용된 자유를 제공하여, 어린이의 표현에서 어른이 기대하는 표현유형으로의 이행을 자연스럽게 도와주는 것이다. 즉 ‘의사실기’는 신체적, 심리적 상태를 위해 적절한 표현을 하게 하는 기간이다.

로웬펠트는 “이 시기의 아동들은 시각과 지각의 발달로 고의 객관적인 상태에서 사물을 관찰하게 되며 주위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데 대담성이나 자신감을 점차 잃어 가는 경향이 있다”¹³⁾고 전한다.

그러진 것이 눈에 비치는 것만큼 사실적으로 닮지 못하는 데에 불만을 느껴, 그리는 데 대한 의욕을 상실하게 될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이 시기의 아동들은 운동이나 언어 표현(동요·동화·소설)으로 흥미가 전환되며, 지력과 관찰력이 크게 발달함에 따라, 그림에 있어서는 자기 발명적인 디자인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또 이제까지의 인물 위주의 표현보다는 자연 풍경이나 과학 등으로 소재가 다양해진다.

그리고 이 시기를 “사실적 그림의 극치를 이루는 시기”¹⁴⁾라 하였다. 이 시기 아동의 그림은 지나친 리얼리티로 인해 만화로 전락할 수 있는 요소가 도사리고 있으며, 그림 표현이 전도식기 만큼 신선미는 없지만 어른스러운 분위기가 있다고 하였다. 의사실기에 돌입하는 나이에는 약 40% 이상이 그림 그리는 즐거움을 못 느끼는 경향이 있는데 그 이유는 철저한 리얼리티가 되지 않은 아동은 자연히 그림과 멀어져 가게 된다고 하였다. 그 대신 만화풍의 그림에 흥미를 더 가지게 되는 것도 특징이다. 또 지각이나 논리적 사고만큼 그림이 따라 주지 않아 그림에 대담성이 없어지기 쉬운 시기라고 할 수 있다.

13) 로웬펠트/브리테인, 인간을 위한 미술교육, 서울교육대학교 미술교육연구회 옮김, 미진사, 서울:1993, pp193~195.

14) 김정, 아동미술의 모든 것, 예경, 1997, p.162

고학년이 되면 육체적으로 많이 성장하게 되며 정신적으로는 논리적인 사고를 하게 되고 자아의식이 강해지며 주위 사물을 객관적으로 보고 판단하려고 한다. 따라서 좀 더 사실적으로 그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원하는 대로 그려지지 않으면 스스로 그림에 소질이 없다고 판단하여 자신감을 잃기도 하므로 이러한 마음을 고려하여 지도해야 한다. 고학년 단계는 미술에 대한 이해와 성숙이 크게 발전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이 시기의 아동은 자신의 시각 세계에 대해 좀 더 분석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고, 좀 더 사실적으로 생각하기도 한다. 그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표현 및 지각 능력의 발달로 부분 관찰, 경험의 환기, 기억화 등을 계속 하며, 자연, 풍경, 정물 등에서 사물을 나타내기 위하여 기본적인 기하형을 구사할 수 있다. 둘째, 자연이나 주변 환경에서 공간감을 관찰하고 원근 효과를 의식하게 된다. 셋째, 일상생활에서 인물의 형태 및 동작의 특징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인체, 동물 등의 움직임과 비례관심을 가지고 스케치하는 것에 흥미를 가진다. 넷째, 색채 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색상을 구구상하며 표현한다. 마지막으로 이 시기의 아동들은 우리 신체의 기능, 약품, 전쟁, 오락, 사회적 의무, 시중드는 일, 인척 관계, 이구, 사회 구조, 질병, 미래 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미술의 소재가 되는 것이다.

이상으로 고학년 아동의 회화의 특징에 대한 연구를 소개해 보았다. 미술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기능이 섬세해지며, 미술에 대한 자아의식이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굳어지는 중요한 시기이다. 고학년 아동들의 지각 및 감상 능력, 조형 의식 및 기능 등 미적 표현의 특징을 잘 파악하고, 가르치는 교사는 이 시기의 아동들의 관심 분야를 정하고 관련된 아이디어를 해석하고 활용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또한 유연하고 탐구적인 태도를 가지도록 하며, 독창성을 존중하고 자신의 창의적인 사고와 감정을 사려 표현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 그래서 미술 활동에 대한 올바른 해석과 꾸준한 관심과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이시기에 나타날 수 있는 개인차를 인식하고 적절한 지도를 하여 긍정적인 학업 성취가 되도록 조력자의 자리에서 노력해야 할 것이다.

Ⅲ. 초등학교 고학년의 다양한 회화 표현

1. 아동화의 발달 단계의 여러 연구

바람직한 미술교육의 성과를 얻으려면 무엇보다도 어린이들의 성장 발달과 변화에 따른 발달 단계와 표현 유형, 인지능력 및 창의성과의 유기적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들을 성장과정마다 독특한 특징을 드러내고 그림의 발달에도 그들만의 순서와 단계가 있다. 그러나 그 순서와 단계는 개인의 성장 속도, 주변 환경, 소질, 의욕, 교육의 정도, 지도방법, 개성 등에 따라서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일률적으로 구분하여 정립된 것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지금까지 많은 연구가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학자에 따라 발달단계의 구분이 각기 다르다.

아동들의 표현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변화되어 나가는지를 판단하게 되면 그들의 미술표현의 발달 과정을 올바르게 이해 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아동의 미술 발달과 심리를 논한 여러 연구가들의 아동화 발달단계와 그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은 인간 교육의 한 수단으로써 교육의 목표로 생각하여야 하는 오늘날 교육에서 강조하는 데 그 가치가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조화된 인격 형성의 완전을 기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연구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바람직하게 아동화를 이해하고 지도함으로써 미술교육의 바른 흐름을 이어나가는 것이 미술교사들의 바른 자세인 것이다.

여기서, 그 중 대표되는 몇 사람의 연구 내용을 살펴보고, 보다 효과적인 아동화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아래와 같이 서술해 본다.

우선 아동들의 미술 표현을 이해하는데 최초의 꺾적거림으로부터 인물표현

으로 발전해가는 과정을 세밀히 분석한 로웬펠드와 켈로그(Kellogg)의 연구를 살펴보기로 하고 그밖에 아동미술표현 발달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버트(Burt), 루겐스(Luckens), 리드(Read), 린드스트롬(Lindstrom), 김정(金正), 아오끼(青水誠四郎)등의 연구를 요약하여 단계별 특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1) 로웬펠드의 아동화 발달 연구

로웬펠드는 아동의 조형 능력 발달 단계를 대체적으로 6단계로 나누어 각 단계별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의 하였다.

(1) 난화기(2~4세) : 이 단계에서는“무엇인가 그린다는 목적보다는 손의 근육 운동과 그 결과로 생긴 선들을 발견하고 즐기는 것”¹⁵⁾으로 점차 발전되면서 회전 형태가 나타난다. 불규칙한 선은 수평, 수직, 곡형, 혼합형 등 좌우 상하로 회전되며 어떤 상징적 의미기 나타나는 형태가 그려진다. 이 시기의 그림은 미분화상태의 표현이다.

(2) 전도식기(4~7세) : 무의식적인 표현 과정으로부터 점차 의식적인 표현과정으로 옮겨지는 상징적 도식의 기초 단계이다. 이 시기의 특징은 대상에 대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미지 또는 대상의 감정을 상징적으로 묘사한다. 인물을 주로 많이 그리는데, 처음에는 원형과 팔다리, 물통, 발 등이 그려지다가 점차 발전하여 웬만한 사물의 형태를 풍부하게 잘 그린다. 자기중심적이며 동화적 꿈이 담긴 내용이 많다.

(3) 도식기(7~9세) : 독자적인 표현이 나타나며 도식적인 그림이다. 사물의 특징을 객관화시키려는 노력이 엿보이며, 인물이나 사물에 대한 개념이 부족해서 자주 반복하려는 경향이 있다. 공간 개념이 싹트기 시작하며, 공간에 대해 분명한

15) 권상구, 아동미술교육, 2001, 미진사, 서울, p.48

질서가 이루어져서 기저선으로 땅과 하늘을 구분하고 모든 사물을 기저선 위에 그린다. 거기에 비해 주관적인 공간표현에 속하는 겹친 그림이나 평면과 입면이 함께 나타나는 그림, 투시(X-ray) 그림 등이 나타나며, 시간 표현에 대한 독특한 방법으로 기저선을 두 개 써서 연속적으로 일어난 사건을 보여주는 그림도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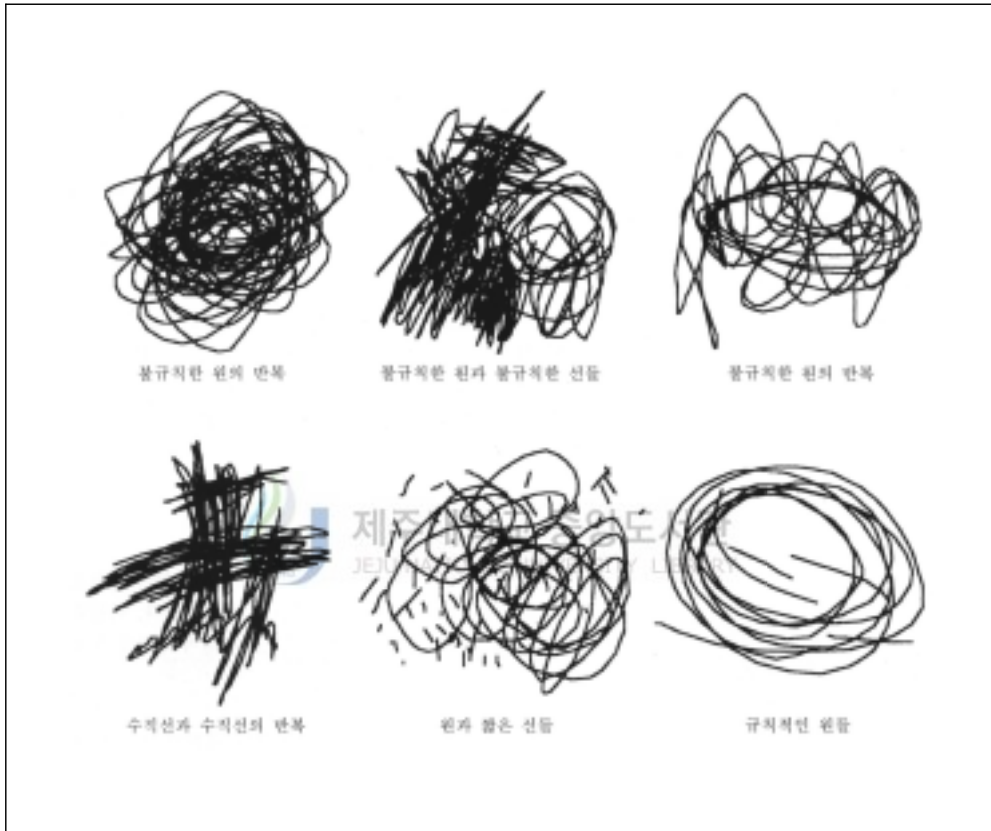
(4) 여명기(9~12세) : 도식적인 표현에서 탈피하여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묘사로 접근하는 시기이다. 이 시기의 아동들은 시각과 지각의 발달로 거의 객관적인 상태에서 사물을 관찰하며, 주위환경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 그림을 그리는 데는 대담성이나 자신감을 잃어가는 경향이 있다.

(5) 의사실기(12~14세) : 이 시기의 아동들은 지각이 발달하여 논리적 사고가 증대한다. 모든 묘사가 운동감이 많아지며, 삼차원적인 표현이 가능해진다. 본 것을 그대로 그리는 시각형과 느낌과 감정을 그리는 감각형으로 나타난다. 아동들이 그의 작품에 대해 점차 비판적으로 되어 자발적인 활동으로서의 표현은 마지막 단계이다. 그림이 잘되는 아동들과 달 되지 않는 아동들의 차이가 점차 드러나게 된다.

(6) 사춘기(14~17세) : 진정한 의미의 창조적인 그림을 그리는 시기이다. 이 시기의 소년들은 대부분 그림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리게 된다. 신체발달과 언어발달이 극도로 이루어 왕성해지고 외계에 대한 인식지능과 표현기능이 따라가지 못하는데 갈등을 느껴 미술표현이 점차 침체되는 시기이다. 세 가지 그림 유형으로 나타나는데 시각형의 소년은 그의 신체감각이나 감정적으로 느끼는 주관적인 경험에 의한 것을 표현한다. 체질상의 두 유형에 맞는 교육이 필요한데도 일률적으로 한 가지만 시행에서 소년들은 흥미를 잃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상으로 로웬펠드의 아동화 발달 단계를 살펴보았다. 그는 아동의 흥미와 능력

을 과학적으로 해명하고 조형교육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발전시키는데 많은 공헌을 하였으며 오늘날 까지도 세계 각국의 아동 미술 교육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림 1> 난화기의 그림들: 처음에는 “낙서와 같은 불규칙한 형태와 선이 점차 원의 형태로 발전하여 삼각형, 사각형 등의 각을 표현하고 십자 모양이나 방사형의 선”¹⁶⁾들이 나타난다. 이러한 양상들이 점차로 발달, 진행되면서 얼굴의 형태나 팔, 다리, 몸통 등을 표현하면서 인물과 함께 나아가 동물의 모습까지도 표현하게 된다. 그리고 나무, 집, 자동차, 배등과 같은 구체적인 형태가 표현된다.

16) 문형준, 아동 미술 실기 교실, 미진사, 2004, 서울, p.58



<그림2> 전도식기 - 5세 (여) / 크레 파스+수채용구: 난화가의 그림에 비해 인물 표현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림3> 도식기 - 7세(남) / '엄마와 함께', 크레 파스+수채: 색이 강렬하며 인물의 표현이 대담해지고 인물의 크기가 비교되었으며, 사물을 표현하는데 있어서 사실적이다.



<그림4> 여명기 - 2학년(여) / '동물원', 수채: 기린의 특징이 잘 표현되어 있으며 관람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표정을 표현함으로써 그림을 감상하는 이로 하여금 공감대를 형성하게 한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그림5> 의사실기-시각형 청소년의 그림 (좌 : 정물, 수채, 5학년 남 / 우 : 정물 소묘, 5학년 여)

2) 켈로그의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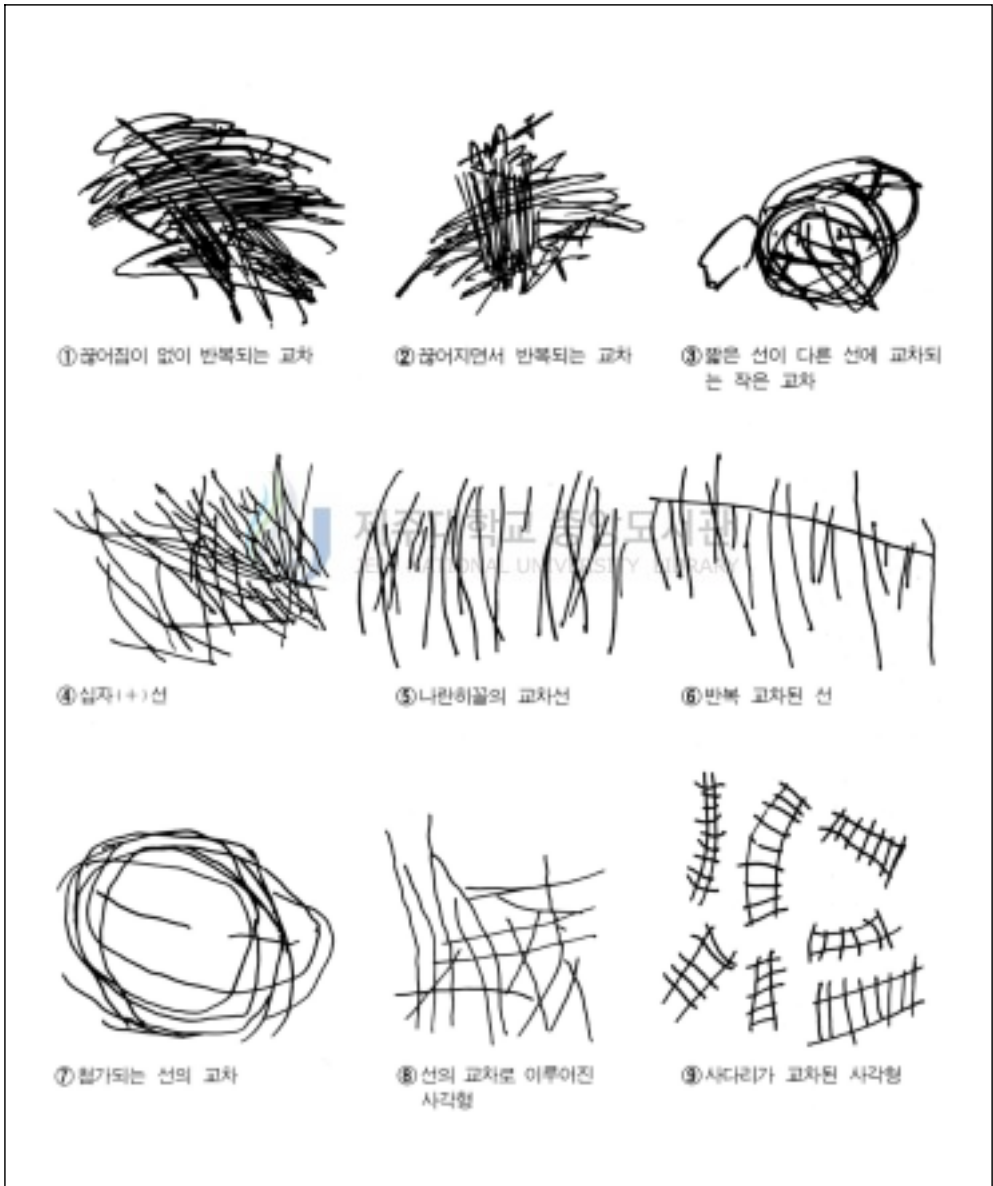
켈로그 특히 유아들의 끄적거림을 최초의 미술표현의 시작으로 보고 인물표현으로 발전하기까지의 과정을 세밀히 분석하였다.

(1) 초보적인 낙서 : 2세를 전후해서 어린이의 눈의 통제 없이도 다음 표와 같은 20가지의 낙서를 할 수 있게 된다.

1		점
2		수직선
3		수평선
4		사선
5		곡선
6		반복된 수직선
7		반복된 수평선
8		반복된 사선
9		반복된 곡선
10		개곡선
11		폐곡선
12		파로선
13		고리선
14		반복된 고리선
15		달팽이선
16		반복되어 덮인 원
17		반복된 원
18		펼친 원
19		교차된 원
20		불완전한 원

<그림6> 초보적인 끄적거림의 종류 20가지

(2)기초 도형 : 어린이들을 3세가 되면 단순한 선에 교차되는 형태와 원, 삼각형 그리고 또 다른 모양을 붙여서 새로운 형태를 만드는데, 이것이 기초 도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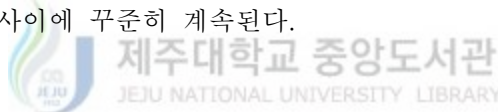


<그림7> 선의 교차

(3) 도형 : 기초 도형이 이루어지면서 어린이의 그림은 6가지 기본 도형에 의해 분석될 수 있다. 이 도형들은 사각형, 원, 삼각형, 십자, 대각십자 등의 5가지 기하학적인 형태와 불규칙한 형태를 합친 6가지이다.

(4) 연합 : 두 개의 도형이 함께 나타난 것을 뜻하는데, 이러한 연합은 어린이 스스로가 배워 익힌 미술이 진전됨에 따라 차츰 시각적으로 선 구성의 체계가 이론적으로 잡혀가게 된다. 또 “연합은 어린이 스스로가 배워 익힌 미술 과정의 중요한 부분”¹⁷⁾이 된다.

(5) 집합 : 셋이나 그 이상의 도형단위를 집합이라 한다. 가능한 집합의 무한대이며, 보통 2~3세에 이루어지나 복잡한 집합은 3~4세에 만들어 진다. 어린이는 그림을 스스로 배워 익혀감에 따라 자기가 가장 좋아 하는 효과를 낼 수 있는 근육의 압력이나 사용을 위해 가장 손쉬운 것을 알게 된다. 이러한 도형의 구성은 3~5세 사이에 꾸준히 계속된다.



3) 리드의 시대 개념 연구

리드는 그의 저서 <예술을 통한 교육>에서 아동화의 발달 단계를 다음과 같이 전개하였다.

(1) 난화기 (2~5세) : 이 시기는 무의미한 끄적거림이 나타나는 시기로, 차츰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의미 있는 끄적거림으로 발전해나간다. 이때의 특징적인 면을 맹목적인 낙서, 유목적적인 낙서, 모방적인 낙서, 그리고 국부적 낙서 등으로 4개의 단계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2) 선묘시대(4세) : 시각적인 조절이 진보하는 시기로 사람의 모습을 많이 그리는 시기이다. 그 표현은 원으로 된 머리, 그 속에 두 점으로 표현되는 눈, 한

17) 권상구(2001), 전계서, p56

쌍의 선인 다리 등으로 되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몸을 나타내는 원과 팔을 나타내는 두 개의 선을 그릴 수 있게 되는데, 보통 손보다 다리를 먼저 그리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각 부분의 완전한 형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조립이 되지 못한 상태가 된다. 그러나 구태여 하려고 들지도 않는다.

(3) 서술적 상징의 시기(5~6세) : 모양은 점차로 정돈되나 소박한 상징적인 낙서를 하는 시기이다. 사람의 묘사는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단계이지만 그러나 아직은 미숙하여 묘사력이 부족해서 상징적 도식적일뿐이고 얼굴의 모습도 매우 혼란된 묘사에 그친다. 그러나 사물에 대해서는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지배하기 때문에 자기가 느끼는 대로 자신의 형태를 만든다. 대체로 이 도식의 형태는 각 어린이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러한 도식들은 상당히 오랫동안 반복되어 사용된다. 자기가 좋아하는 형은 언제나 즐겨서 반복해가며 그리는 경향이 있다.

(4) 서술적 사실기 (7~8세) : 사물을 보고 그릴 수 있는 정도로 대상을 인식하게 되지만 그림을 보이는 대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지식에 의해 자신이 기원하는 모습을 묘사하게 된다. 이것도 자기 중심적적인 경험의 표현이며, 현실의 대상에 관심이 있는 것이 자기가 원하는 묘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묘사는 상당히 세부적인 것까지도 하게 되는데 아주 가깝게 묘사 할 수 있으며 장식적인 표현에 흥미를 갖기 시작한다.

(5) 시각적 사실기 (9~10세) : 자기중심적 생각에 의한 그림에서 점차 탈피하여 자연물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면서 사물에 대한 관찰력이 민감해진다. 조금은 대상을 닮게 그리려고 윤곽선을 바르게 그리는 것뿐만 아니라 2차원의 시기를 거쳐 3차원의 시기로 발전하게 되는 과정으로, 평면적인 표현에서 벗어나 어느 정도 명암을 넣어 입체적인 면을 나타내려고 하며 중복과 투시법에도 주의를 기울인다. 또한 멀리 있는 것과 가깝게 있는 것을 표현해내려는 원근법을 알게 된다. 명암의 의미를 알게 되므로 풍경화도 그릴 수 있다.

(6) 억압의 시기(11~14세) : 대부분의 어린이들이 자연적으로 열심히 그리던 자신의 그림에 환멸 같은 것을 느껴 그림을 그리기 싫어하며 흥미를 언어 매체로 돌리는 시기이다. 이는 자신의 그림에 개고간적인 사실을 추구하게 되는데, 표현 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그림이 대상과 다르게 표현되었음을 인식하여 실망을 느끼게 되는 발달단계의 한 과정이다. 이로 인해 그림에 흥미를 잃게 되는 아동의 수가 상당히 많게 되는데, 이 중에는 드물게 도안이나 삶의 모습에 계속해서 흥미를 느끼는 어린이들도 있다. 또한 언어를 소재로 한 동화, 소설 등이 줄거리가 그림에 나타나는 경향이 곧잘 보인다.

(7) 예술적 부활의 시기(14세 이후) : 이때는 진정한 의미의 예술적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 시기로 묘화의 흥미를 부활시키는 단계이다. 남자가 그린 그림을 구별할 수 있게 되는데, 남자의 그림은 기술적이고 기계적인 표현에 흥미를 느끼며 여자의 그림은 색채가 풍부하고 형태와 선이 아름다우며 장신적인 표현에 관심을 갖는다.

4) 버트의 연구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1) 난화기(2~4세)

난화기 아동들을 발달 정도에 따라 4단계로 나누었다.

- ① 목적이 없는 난화 : 무엇을 그리겠다는 뚜렷한 목적이 없이 선을 긋는다. 이때 근육운동은 어깨에서 시작하여 팔 전체를 포함한 것이며 헤엄치듯이 그린다.
- ② 목적이 있는 난화 : 연필 끝에 관심을 가지고 사물을 그려나간다.
- ③ 모방적인 난화 : 관심 있는 것을 모방하여 그린다.
- ④ 국부적인 난화 : 관심 있는 사물의 특징 부분을 열심히 묘사한다.

(2) 선화기(4세)

시각조절이 어느 정도 진보되는 시기로서, 사람의 형태를 주로 그린다. 이때 인물의 얼굴은 원으로, 두 눈은 점으로, 다리는 두 선으로, 몸통은 사각형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3) 서술적 상징기(5~6세)

아동들이 좋아하는 특정한 양식에 장기간 집착하려는 경향을 보이며, 상징적인 그림을 그린다.

(5) 시각적 사실기(9~10세)

기억이나 상상을 주로 그리는 시기를 지나 주위환경 및 자연현상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그리려는 단계로 접어든다. 투시적 표현이나 원근법이 시도되며, 풍경화를 즐겨 그린다.

(6) 역제기(11~14세)

미술표현이 침체하고 그리는 대신에 언어적 매체에 흥미를 느낀다. 인물보다는 자연 풍경이나 과학 등에서 소재를 찾는다.

(7) 예술적 부활기(15세 이후)

예술적 재능을 꽃피울 수 있는 시기이며, 남녀의 성별에 따른 다른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여자는 색깔이 다양하며 장식적인 그림을 즐긴다.

5) 김 정의 연구

(1) 신생아기(1~3세)

우리나라의 아동은 서양보다 묘화행위가 일찍 발달하는 경향이 있다. 문화인류학적 입장에서 다룰 일이지만, 유아의 경우에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수하다. 우리나라의 아동들은 연필을 입에 대기도 하지만 무엇인가 시늉을 보이기도 한다. 물론, 묘사행위는 불가능하지만 성장과정으로 의미가 있다.

(2) 난화기(3~5세)

그림과 낙서가 동시에 뒤섞인 형태로서 그림이라기보다는 낙서에 비중이 더 두는 시기이다. 그러나 유아에 따라서 진지한 그림을 그리는 경우도 있다.

(3) 전도식기(5~7세)

그림을 의식적인 표현으로 그린다. 상당한 흥미를 수반한 그림제작이 이루어지며, 자신과 객체가 일치되는 경향을 보인다. 아직 공간개념, 원근관계, 대소 관계 등이 무시된 채 주관적인 사고에 의해 그려지고 있다.

(4) 도식기(7~9세)

이 시기에는 사람과 사물에 대해 일정한 개념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과 판단이 생기므로 독자적 표현이 나온다. 사물의 외면과 내면의 형태묘사가 시도되고, 상징성이 후퇴하며, 점차 객관적 사실에 접근하려는 노력이 보인다. 그러나 표현성에 유연성을 상실하기 쉬운 이유는 주관과 객관의 사이에서 고민하는 단계이기 때문이다.

(5) 여명기(9~11세)

도식화되었던 기하학적 선묘법으로부터 객관적이며 사실적인 묘화로 접어드는 시기이다. 사실적 묘사 쪽으로 들어가려는 경향이 강하다. 시각과 지각의 발달로 사물의 형태를 잘 알게 되는 반면에 그림을 그리는 데 자신감이 없어지는 시기이다.

(6) 의사실기(11~13세)

이 시기에는 거의가 사실적인 그림을 그린다. 사물과 닮지 않으면 곧바로 못그렸거나 포기하는 상태로 변하는 시기이다. 지각이나 논리적 사고만큼 그림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그림에 대담성이 없어지기 쉽다.

(7) 사춘기(13~16세)

자신의 그림에 대해 비판적이 안목을 가지게 된다. 풍부한 상상력은 거의 쇠퇴하고 만화에 가까운 그림을 그린다. 그러나 다른 그룹의 소년들은 어른의 흉내처럼 제법 기법상의 여러 조건을 터득하는데 노력을 가하기도 한다.

6) 아오끼의 연구

(1) 착화의 시기(2~3세)

본능적 형태로 무엇인가 둥그란 흔적을 반복적으로 긋는다. 인물도 아니고 형태도 아닌 묘화이다.

(2) 얼굴 흥미의 시기(14~15세)

처음으로 인물 그림을 그리는데 얼굴 부분을 집중적으로 그린다. 눈, 코, 입으로 상징되는 얼굴이 대부분이다.

(3) 팔, 몸통, 다리 묘사의 시기(5~6세)

얼굴이 그려진 다음에는 팔, 몸통, 다리 등으로 발전한다. 팔, 다리, 몸통을 구분하는 지능이 작용하고 있다.

(4) 의복 묘사의 시기(6~7세)

어떤 모양을 그려내는 시기이다. 의사의 묘사에 흥미 있고 예술적인 감각이 싹트는 무렵이다.

(5) 신체 각부 묘사의 시기(7~8세)

눈이나 귀 또는 근육 등의 특정한 부위에 관심을 쏟는 시기이다.

그 밖에도 다른 많은 연구자들이 아동화의 발달 과정에 대하여 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 대부분의 그 연구는 사회 환경, 문화적 배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시각적, 촉각적 기질에 따라서 정서적 표현, 인지적 표현의 다양한 개별성을 가지는 것을 볼 수 있고, 성장 정도에 따라 대체적으로 주관적, 정서적인 표현 단계에서 객관적, 지적 표현의 단계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알 수 있다.

2. 그리기 활동의 영역과 지도 방향

아동은 그리는 활동을 통하여 그들의 생각이나 느낌, 욕구 등을 표출해내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 활동을 통하여 자신을 표현하고 감정을 전달하고 즐기며 성취욕을 만족시킨다. 아동의 그리기에 주로 다루어지는 것은 생활 주변에서 보고 느낀 것, 경험한 것, 생각한 것, 그림책에서 본 것, 음악을 듣고 연상되는 것, 미지의 세계, 꿈 등을 상상하여 그리는 상상화나 체험을 바탕으로 한 경험화가 그 주를 이룬다.

여기서 살펴볼 것은 주제에 따른 영역과 재료와 기법에 따른 영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주제에 따른 활동 영역

① 상상화 : 아동의 기억이나 상상에 의하여 표현되어지며 내면세계 있는 것이 외부의 세계로 표출되면서 창조적인 사고와 상호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으면서 표현 활동의 결과를 가져오는 그림을 의미한다. 어른들에게는 하찮은 것이 아동들의 눈에 비취질 때는 무한한 상상력을 가져오게 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지도 하는 입장에서는 아동의 무한한 상상력을 맘껏 펼쳐 낼 수 있도록 그들을 자극하고 흥미의 고조를 위해서 자유로운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하며 객관적인 사실을 강요하지 말아야 하며 보다 자유롭고 활기차며 능동적인 표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간접적인 조력자의 역할을 다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는 지도를 하여야 할 것이다.

② 공상화 : 상상화가 비슷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현실성을 바탕으로 하는 상상화와 달리 공상화는 현실성이 배제된 황당무계한 내용의 소재가 그 차이를 둔다. 아동들의 뛰어난 감정이나 사고가 훌륭한 조형의 바탕을 이루는 것이다. 아동의 감정은 굉장히 자유분방하면서도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어서 그것이 바로 표현 활동에 그대로 옮겨져 반영되는 것이다

③ 생활화 : 그리기의 소재가 아동이 살고 있는 주변 환경이나 생활 자체가 되어 표현 되어지는 그림을 의미한다. 일상생활에서 얻어지는 경험이나 보고 느낀 것들이 직접적인 동기가 되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는 아동의 흥미를 끌 수 있는 것으로 교사는 생활 속의 단조로움을 재미있는 이야기로 꾸며서 아동들이 평소에 경험하고 느낀 감정들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해 줌으로써 자칫 평범해지기 쉬운 일상생활을 적극적이고 흥미롭게 표현 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④ 환상화 : 전체적인 그림의 구성요소가 신비롭고 화려하고, 비현실적인 것들로 어우러져 현실 속에서는 일상적으로 볼 수 없는 독특한 양상을 보이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도시의 야경이나, 놀이동산의 회전목마를 타면서 느끼는 느낌, 불꽃의 퍼짐으로 보이는 화려한 느낌과 같은 환상적인 소재가 활용될 때 보다 폭 넓은 경험의 세계와 조형 활동의 폭을 넓혀 주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⑤ 기억화 : 오래되지 않는 경험이 소재가 되는 생활화에 비하여, 기억화는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간 경험들을 기억해내서 그리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다. 기억화에서도 경험이 주된 소재가 되며, 표현의 바탕이 된다. 아동들을 여러 가지 상황에 부딪치면서 경험하는 것들을 기억 속에 쌓아둔다. 그것은 곧 하나의 지식이 되고, 이것이 쌓여져서 아동의 성장 발달을 가져오게 된다. 이러한 기억들일 표현 활동을 통하여 되살려져 다시 기억으로 유도된 경험은 보다 더 확고한 지식으로 쌓여간다는 의미에서 아동들의 미래를 바람직한 활동의 가치를 갖게 하는 것이다.

⑥ 사생화 : 그리려는 대상물을 관찰해 가면서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취학 전 아동이나 초등학교 저학년의 아동들에게는 사실상 무리가 있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아동들은 보이는 사물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 것을 표현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생화라고 해도 대부분의 아동들은 그들 자신의 상상이나 경험, 기억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아동의 사생화는 자연이나 대상물에 대한 인식의 발달과 관찰력을 키워주는 좋은 훈련이 될 수 있다. 사생화를 지도 하는데 있어 가장 유의 할 사항은 아동의 활동에 대한 특성의 이해를 전제로

하여 시각적인 충실을 강조하거나, 닳게 그리는 활동으로 유도하는 것은 오히려 아동의 표현 능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어 그 점을 특히 유의해야 한다.

⑦ 자유화 : 주제나 재료에 제한을 주지 않는 그리기 활동을 의미한다. 자유로운 활동을 존중하며, 표현 욕구의 충족을 최대화하여 표현해야 할 것이다. 어떠한 제한을 두지 않고 아동의 순수한 내면세계를 표출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아동의 순수한 활동을 중심으로 다양한 재료나 표현 방법으로 보다 즐겁고 자유로운 활동이 되도록 배려해야 한다. 잠재된 창조 의식과 새로운 것에 대한 자신감과 용기를 키워나갈 수 있도록 어떠한 지시나 간섭 없이 미래에 대한 당당함을 갖도록 지도 하여야 할 것이다.

⑧ 협동화 : 다수의 아동들을 분단으로 나누어 활동하는 공동 작업을 의미한다. 여럿이 모여 그림을 그리게 함으로써 사회성을 키워나가게 하고 자아의 발견을 통하여 개성을 키워 가는데 그 효과를 얻는다. 공동의 주제를 놓고서 그리게 하거나, 각자의 생각을 하나의 그림 속에 표현함으로써 개별 활동에서 느낄 수 없는 새로운 자아의 발견과 사회성을 기르는데 그 효과가 있다.

이상은 주제에 따른 그리기 활동 영역을 살펴보고 지도상의 유의할 점등을 제시해 보았다. 다음으로는 재료와 기법에 따른 그리기 활동 영역과 그 의의를 살펴보기로 한다.

2) 재료와 기법에 따른 활동 영역

① 도화지의 의미 : 아동들의 표현활동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이며, 일반적이며 보편적인 재료는 종이다. 그러나 현대 미술 표현에서는 반드시 종이에 그려야 한다는 재료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제한성을 깨뜨려 우리 생활 주변에 널려 있는 모든 것들이 표현 재료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의식이 아동들의 표현에도 강조되어야 할 문제임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상식화된 개념을 뛰어 넘어 그림을 어

떠난 곳에 그러도 훌륭한 작품이 될 수 있다는 전통적인 고정 관념을 깨어나갈 수 있도록 지도 한다.

② 소묘나 채색 재료 :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라는 뜻과 그 의미를 같이 하여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아동 미술에서는 일반적인 표현 재료의 하나로 연필과 크레용이나 크레파스가 사용된다. 선묘나 소묘에, 그리고 채색에 각 각 연필과 크레파스만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조금만 기존의 틀을 벗어나 관심을 돌리면 우리 주변에 무수히 많은 재료가 얼마든지 있다. 이러한 틀에서 탈피할 때 아동들에게 무한한 가능성과 새로운 것에 대한 탐구 정신을 키워주고 창조를 향한 진보적인 의식을 심어줄 수가 있다.

③ 스크래치 : 도화지위에 여러 가지 밝은 색으로 채색하고 그 위에 어두운 단색으로 전체를 덧칠하여 뾰족한 도구를 사용하여 긁어내어 그리는 기법이다. 취학 전 아동이나 저학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긁어 그린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아동들의 흥미 끄는데 부족함이 없다. 이 활동에 있어서 다소 유의 할 점은 가급적 면적이 너무 크지 않은 작은 도화지를 이용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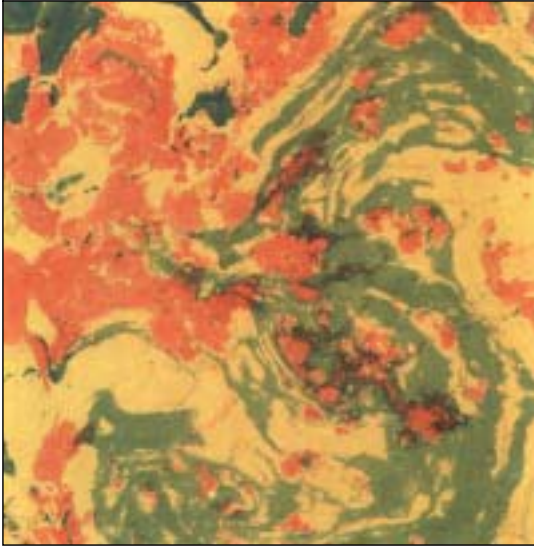
<그림8> 비 오는 밤(7세 여) / 스크래치 기법을 이용한 표현

④ 콜라주 : 화면에 여러 가지를 붙여 또 다른 효과를 노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추상 화가들의 작품에 활용되기도 하였다. 평면 위에 입체적인 것들을 붙여 나타내기도 하고 , 형겁이나 신문지 등을 사용하여 특별한 효과를 내기도 한다. 아동들은 붙이는 활동에 미숙함이 많아 다소 지저분한 양상을 보인다. 그렇다 하더라도 새로운 경험을 쌓는다는 의미로 권장되는 활동이다.



<그림9> 화분(6세, 여) / 콜라주 기법을 이용한 표현

⑤ 마블링 : 물과 기름의 반발 작용을 이용하여 나타내는 방법으로 우연의 효과를 내는 데 그 활동의 의미를 두고 있다. 요즘은 마블링용 재료가 많이 나와 재료를 준비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다. 이 활동 또한 아동의 새로운 조형 경험을 제공하여 흥미 있는 참여를 부여 한다. 커다란 그릇이나 대야 등에 물을 가득 담아 두고 그 위에 마블링용 물감이나 먹물 , 유성 페인트 등을 떨어뜨리면 물의 유동에 따라 여러 가지 우연적인 무늬를 나타낸다. 그 위에 흡수성이 좋은 종이를 떼내기를 하는 것으로, 아동들에게는 비교적 저항감을 느끼지 않고 즐거움을 줄 수 있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기 활동에서 반드시 손으로 직접 그리는 것만이 표현의 방법이 아니라 이와 같은 우연의 효과도 미술 활동에서는 나타 재기로 이어지는 하나의 방법임을 체험케 하는 좋은 활동이라 할 수 있다.



<그림10> 저녁 호수(6세, 여) /
마블링 기법을 이용한 표현

⑥ 모자이크 : 과거의 유럽 건축 양식에 많이 이용되어 왔던 것으로 현재까지도 건축물의 내·외부를 장식하는 데 모자이크를 이용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아동 미술에서 주로 많이 사용했던 방법을 색종이 모자이크였다. 그러나 색정이 뿐 만 아니라 생활 주변의 모든 물질들이 재료가 될 수 있다. 이 활동은 화면 전체를 메워나가는 것으로 아동들에게는 면적이 작은 것을 이용하는 것이 저항감을 줄여주고 흥미를 지속시켜 줄 수 있는 활동이 된다.



<그림11> 오리(7세, 여) / 골판지와 계란껍질을 이용한 표현

⑦ 문지르기 : 질감이 두드러진 재료 위에 종이를 덮어 놓고 연필이나 파스텔, 크레용 등으로 문질러서 찍어 내는 활동이다. 종이는 잘 찢어지지 않고 탄력성이 있는 것이 좋으며 동전이나 나뭇잎, 나무껍질 등을 이용하여 찍어 내면 아동은 또 다른 경험에 대한 흥미를 보인다.

⑧ 물감 떨어뜨리기 : 묽은 물감들을 붓에 찍어 떨어뜨리거나 스포이트를 이용하여 방울로 떨어지게 하는 방법이며, 각기 다른 색깔들의 물감 방울들이 떨어지면서 서로 엉키게 하여서 우연의 독특한 효과를 노리는 활동이다. 아동들에게 큰 저항감을 주지 않는 활동이며, 다른 방법으로는 붓에 물감을 묻혀 뿌리기로 나타내는 방법도 새로운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활동이 될 것이다.



<그림12> 과수원(6세, 남) 물감 떨어뜨리기와 뿌리기를 이용한 기법

⑨ 물감 불기 : 수채 물감이나 먹물 같은 것을 도화지에 떨어뜨려 입으로 불어보는 활동으로 입김의 강약이나 부는 방향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우연적인 효과가 나타난다. 여러 가지 색깔을 이용하여 불어서 우연적인 선들이 서로 교차되는 과정에서 혼색의 효과나 선들의 뒤엉킴에서 새로운 시각 효과를 얻을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불어서 나타난 형태를 적절히 이용하여 그리거나 찍기를 덧

붙여 표현해 보면 또한 새로운 분위기의 그림을 얻을 있다. 이 활동은 붙기 작업이 수반되기 때문에 너무 오래 하여 머리가 아픈 경우가 있기 때문에 비교적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배려가 필요하다.



<그림13> 단풍나무(8세, 남) / 물감 붙기를 바탕으로 한 표현

⑩ 수묵으로 나타내기 : 우리나라 전통 회화의 맥을 이루고 있는 화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우리의 전통을 경험하게 하는 의미 있는 활동이다. 우리나라의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미술 활동은 기법이나 재료에 있어서 언제부터인지 대부분 서구식의 미술 활동이 그 주류를 이루어 왔으며 교육과정에도 우리의 전통 회화 부문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제대로 아동들에게 충분한 경험의 기회를 제공해 주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음을 보게 된다. 새로운 것을 알기위해서는 전통 화법이나 재료에 기반을 두고 표현 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아동들에게 우리의 전통회화 기법이나 재료를 경험시켜 주는 의미로 이러한 기회를 제공하는 데 뜻을 두어야 한다. 먹물을 이용하여 우리의 전통적인 붓으로선 굵기를 해보게 하거나 먹의 농담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화를 느껴 보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물론 준비하는 과정이나 재료 준비가 다

소 번거로울 수 있다. 하지만 요즘에는 간편하게 수묵으로 그리기를 할 수 있는 붓펜이 개발되어있고 갈아진 먹물을 용기에 넣어 팔기도 하여 재료나 활동의 준비에 번거로움을 피할 수가 있다. 아동들의 정서에 알맞게 화선지로 된 연습장도 쉽게 구할 수가 있으며, 우리의 전통회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얼마든지 마련할 수가 있다. 오늘날의 각 나라들이 자기들의 고유할 전통 찾기와 계승에 관한 활발한 움직임의 추세에 비추어 보면 우리의 전통 문화에 대한관심을 갖게 한다는 의미에서도 뜻있는 활동이 되는 것이다.



<그림 14> 저녁노을(6세, 남) / 수묵을 이용한 표현

⑪ 간이 판화 : 간단한 방법으로 판화의 경험을 갖도록 하여, 아동들에게 회화의 한 형식으로서 판화의 특성과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해 주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물감을 손바닥에 묻혀 종이에 찍어 눌러본다든지 여러 가지 사물을 하여 찍어보는 등 판화의 간접 표현에서 얻어지는 감동을 스스로 느끼게 해보는 것은 무척 뜻있는 활동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아동들이 그다지 큰 부담을 느끼지 않고 판화의 즐거움을 맛볼 수 있는 활동들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 사물로 찍기 : 생활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물체를 이용하여 표면에 판화용 잉크나 포스터컬러를 칠하여 찍어보는 활동이며, 각 물체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질감들을 적절히 이용하여 판화의 대표적인 특성인 간접 표현의 느낌을 경험해 보는 것이다. 이는 아동들에게 새로운 즐거움과 기대되는 효과에 대한 즐거움을 충족시켜 주는 좋은 활동으로 보인다. 그리고 한 물체의 표면에 여러 가지 색깔을 채색하여 나타내 보는 것도 즐거움을 한층 더해 준다.

▶ 스텐실 : 아동들이 공판화에 대한 방법과 원리를 경험하게 하는 활동이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적당히 두껍지 않은 쉐트지 같은 것을 이용하여 밑그림을 그리고 칼이나 가위로 오려낸 다음 이것을 다른 도화지 위에 올려 테이프 로 고정시켜 놓고 잉크나 물감을 묻힌 롤러로 밀어보거나 물감을 개어 분무기에 넣어 뿌어 보거나 도색용 스프레이로 뿌어본다. 또는 채를 이용하여 물감을 묻힌 칫솔로 문지르거나 물감을 묻힌 두개의 칫솔을 서로 비벼서 물감이 뿌러지게 하거나 스펀지에 포스터컬러 등을 묻혀 오려진 모양 휘에 가볍게 두드려 본 다음 오린 종이를 걷어내면 오려진 형태대로 모양이 나타난다. 이와 같이 오려진 모양대로 나타나는 형태에 아동들은 의욕적인 활동으로 즐거움과 감동을 만끽하게 될 것이다.



<그림15> 물고기(6세, 여) / 스텐실 기법을 이용한 기법

▶ 모노 프린트 : 일회성의 평판화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유리판이나 아스테이지 위에 물감이나 판화 잉크로 자유롭게 그린다. 그런 다음 그 위에 흡수성이 좋은 종이를 덮어 눌러 찍어보도록 한다. 아동이 판 위에 그린 것과 그것을 종이로 덮어 찍어본 것과 어떻게 다른 이미지로 전달되는가를 경험할 수 있는 활동이며 저항감이 없어 비교적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활동이다.

▶ 스티로폼 판화 : 스티로폼을 일정한 크기로 자른 다음 그 위에 송곳이나 무딘 연필 끝으로 꼭 눌러서 자유롭게 그림을 그린 후 롤러나 넓은 붓으로 물감을 칠한 다음 흡수성이 좋은 종이를 덮어 손바닥으로 부드럽게 문질러 떼어보면 그림의 부분의 희게 나타나고 여백은 잉크 색으로 채식되는 음각화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비교적 딱딱하지 않은 스티로폼의 특성을 이용한 재미있는 표현이 나타나는, 아동의 정서에 어울리는 활동이다.



<그림 16> 아빠(5세, 남) / 스티로폼을 이용한 간이 판화

이상으로 다양한 재료들의 표현 방법으로 여러 각도에서 표현의 방법을 활용하는 것을 살펴보고 정리해 보았다.

여기서 지도하는 이들은 아동이 활발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그리기 활동에 흥미를 가지고 적극적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자기 표현에 자신감을 갖도록 하며 모방 활동을 배제하여 창조성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며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여 새로운 경험을 접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적절한 자극과 칭찬으로 항상 흥미를 가지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효과적인 미술 수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

3. 초등 고학년의 교과서의 회화 표현의 분석

제 7차 교육 과정에서 미술 교과서의 목표는 미술 활동을 통하여 표현 및 감상능력을 기르고, 창의성을 계발하며, 심미적인 태도를 함양하는데 그 목표를 둔다.

여기서 미술 교과 과정 중 초등학교 고학년 교과서(5~6학년) 회화영역을 분석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제 7차 교육과정의 성격과 특성

이 교육과정은 교육법 제 155조 제 1항에 의거하여 고시한 것으로 초, 중등학교의 교육 목적과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이며 학교에서 편성 운영하여야 할 학교 교육 과정의 공통적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이 교육과정의 성격은 다음과 같다.

① 국가 수준의 공통성과 지역, 학교, 개인 수준의 다양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교육과정이다.

- ② 학습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신장하기 위한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이다.
- ③ 교육청과 학교, 교원, 학생, 학부모가 함께 실현해 가는 교육과정이다.
- ④ 학교 교육체제를 교육 과정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한 교육과정이다.
- ⑤ 교육의 과정과 결과의 질적 수준을 유지, 관리하기 위한 교육과정이다.

2) 미술과 교육과정의 체제

제 7차 미술과 교육과정은 개정의 기본 방향에 맞추어 제 6차 미술과 교육과정을 개선, 보완하는 방향으로 교육 과정 체제를 세웠다.

① 미술 교과와 특성을 살리는 가운데 제 7차 교육 과정 개정의 기본 정신을 계획적, 의도적으로 반영하도록 한다.

②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과정을 하나의 체제로 보고 미술과 교육 과정을 일관성 있게 구성하도록 한다.

③ 제 6차 교육 과정 개정의 중점 방향으로 제시되었던 재성, 창조, 정서 교육으로서의 교과 성격을 더욱 강조하도록 한다.

④ 내용 구성에 있어서 필수 학습 요소 및 활동을 중심으로 정선하여 학습 분량을 최적화하고 수준과 범위를 적정화하도록 한다.

⑤ 미술과 학습내용에서 필수 학습요소 및 활동의 계속성 계열성 통합성이 유지되도록 한다.

⑥ 생활과의 관련 속에서 학습자의 관심, 흥미, 필요, 요구를 반영하며, 나아가 미술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한다.

⑦ 국제화 시대에 대비하여 우리 미술 문화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전통 미술을 강조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계 문화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도록 한다.

⑧ 미적 감수성 및 가치관 확립을 위하여 감상 교육을 강화하도록 한다.

⑨ 정보화 시대의 변화에 대처하며 효율적인 교수 학습을 위하여 교수-학습방법의 다양화를 꾀하도록 한다.

⑩ 미술과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하여 다양한 유형의 평가 방법을 활용하고, 학생간의 상호 비교가 아닌 계획된 학습 목표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평가결과는 학생 개개인에 대한 보다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평가 상의 유의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3) 미술과 교육 과정의 목표와 내용 체계

제 7차 교육과정에서 미술 교과목의 목표는 미술 활동을 통하여 표현 및 감상 능력을 기르고, 창의성을 계발하며, 심미적인 태도를 함양한다.

- ① 미적 대상의 가치를 발견하고 이해할 수 있다.
- ② 느낌과 생각을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 ③ 미술품의 가치를 판단하고, 미술 문화유산을 존중할 수 있다.

미술과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하부 목표에서 미술과의 내용인 미적 체험, 표현, 감상 영역의 활동을 고려하며 또한 목표의 인지적, 심동적, 정의적인 면을 함께 고려하였다.

제 7차 교육과정에서는 사고력, 창의력, 정보 활용 능력과 같은 고등정신 능력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학습 내용이나 분량을 축소하여 교육 내용을 적정화 하도록 제시하였으며 이를 위해 필수 학습 요소로 그 내용을 구조화하였다. 필수 학습 요소를 담을 수 있는 큰 범주는 미적 체험, 표현, 감상영역이다.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미적 체험은 표현을 통해 가시화 되고, 이렇게 드러나는 조형의 세계를 감상하게 된다. 또, 표현 활동과 감상활동이 미적 체험으로 자리 잡게 되면서 유기적인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내용을 구분하여 그 구조를 잡기 위한 하나의 틀로서 미적 체험, 표현, 감상 영역을 나누어 구성 하였다.

이 틀은 초, 중, 고등학교의 공통된 영역으로 제시되며, 그 하부에 각 영역에서

다루어야 할 학습 요소를 주제표현, 표현 방법, 조형요소와 원리, 표현 재료와 용구로 추출하여 학습자들이 어떠한 표현을 하더라도 필수 학습 요소를 기본적으로 성취할 수 있도록 구조화하고 있다.

4) 미술과 교과서 내용

제 7차 교육과정의 미술교과서의 내용구성은 학습 분량을 최적화하고 수준과 범위를 적정화하기 위하여 필수 학습 요소를 추출하여 ‘미적 체험’, ‘표현’, ‘감상’ 영역으로 이루어진 내용 체계를 이루었으며 이 세 가지 영역이 학습 활동 내에서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면서 함께 이루어지도록 구성하였다.

제 7차 교육과정에 따르면 초등학교 미술과 내용을 3,4학년과 5,6학년을 함께 묶어서 2단계로 제시하였다.

3,4학년 시기에는 주변 환경에 대한 인식 능력과 감수성이 크게 발달하면서 사물을 보는 방식에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게 되므로, 미적 체험 및 표현 감상 활동을 통하여 사고력, 문제 해결력 등의 발달을 촉진하고 극대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미술 활동되도록 하였고, 5,6학년은 미술에 대한 이해의 폭이 점차 넓어지고 미적 지각이 발달하며, 표현이 섬세해지고 조형의식이 발달하게 되며, 미술 용어와 미술의 흐름을 이해하게 되어 서로의 작품 및 미술품을 감상하는 능력이 점차적으로 발달하기 때문에 ‘미적 체험’, 및 ‘표현’, ‘감상’ 활동을 통하여 ‘창의적 사고력, 문제 해결력, 미의식 등의 발달을 촉진하고 극대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미술 활동’¹⁸⁾이 되도록 하였다.

교과서는 교육 과정을 충실하고 친절하게 반영한 하나의 예시 자료이다. 따라서 교과서의 단원 별 순서를 그대로 따르기보다는 학교의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 재구성하여 수업을 전개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18) 교육인적자원부, 교사용 지도서 4,6학년 미술, 대한 교과서 주식회사 2001. pp.7~9

5) 미술과 단원 구성표

<표 1> 5학년 미술과 단원 구성표

단 원	시간	학습 제재	쪽 수
1. 전체와 부분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러 가지 방법으로 관찰하기 ▪ 관찰한 것 표현하기 ▪ 서로의 작품 감상하기 	2-5
2. 색의 변화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색의 변화에 관하여 알아보기 ▪ 색의 변화를 살려 표현하기 ▪ 서로의 작품 감상하기 	6-9
3. 느낌 표현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품에 관한 느낌 이야기하기 ▪ 느낌을 강조하여 표현하기 ▪ 서로의 작품 감상하기 	10-11
4. 이야기 세상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품을 보며 이야기하기 ▪ 이야기 꾸미기 ▪ 서로의 작품 감상하기 	12-15
5. 사람들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러 사람을 주제로 표현한 작품 감상하기 ▪ 여러 사람의 모습 ▪ 서로의 작품 감상하기 	16-19
6. 수목화와 채색화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목화와 채색화 작품 감상하기 ▪ 수목화와 채색화 그리기 ▪ 서로의 작품 감상하기 	20-23
7. 편리한 생활 용품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러 가지 생활 용품 감상하기 ▪ 생활 용품 만들기 ▪ 서로의 작품 감상하기 	24-27
8. 자연과 조형물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과 조형물의 아름다움 찾아보기 ▪ 형과 색으로 나타내기 ▪ 서로의 작품 감상하기 	28-31
9. 아름다운 포장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장을 위해 사용된 것 알아보기 ▪ 포장에 필요한 것 만들기 ▪ 서로의 작품 감상하기 	32-35
10. 판본체, 궁체로 쓰기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본체로 ‘바른 친구’쓰기 ▪ 판본체로 ‘푸른산 흰구름’쓰기 ▪ 판본체와 궁체에 관하여 알아보기 ▪ 궁체로 ‘나무’ ‘어머니’쓰기 ▪ 이름쓰기 ▪ 서로의 작품 감상하기 	36-41
11. 우리 마을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마을 살펴보기 ▪ 우리 마을 꾸미기 ▪ 서로의 작품 감상하기 	42-45
12. 우리 나라와 다른 나라 미술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나라와 다른 나라 미술에 관하여 알아보기 ▪ 우리 나라와 다른 나라 미술에 관한 자료 전시하기 	46-48
계	64		48

*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미술과 초등학교 5학년 교사용 지도서

<표 2> 6학년 미술과 단원 구성표

단 원	시간	학습 제재	쪽 수
1. 상상 표현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상의 세계 감상하기 ▪ 상상한 것 표현하기 ▪ 서로의 작품 감상하기 	2-5
2. 관찰 표현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찰 표현에 관하여 알아보기 ▪ 관찰한 것 표현하기 ▪ 서로의 작품 감상하기 	6-9
3. 다양한 표현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표현 방법에 관하여 알아보기 ▪ 느낌이나 생각한 것 표현하기 ▪ 작품 감상하기 	10-13
4. 다색 판화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색 판화 감상하기 ▪ 다색 판화 만들기 ▪ 서로의 작품 감상하기 	14-17
5. 궁체로 쓰기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궁체로 '머루 다래' '파란 하늘' 쓰기 ▪ 궁체로 '인사를 잘하자' 쓰기 ▪ 작품 감상하기 	18-21
6. 여러 나라 미술여행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러 나라 민속 공예품에 관하여 알아보기 ▪ 공예품 만들기 ▪ 서로의 작품 감상하기 	22-25
7. 아름다운 환경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름다운 환경에 관하여 이야기하기 ▪ 아름다운 환경 꾸미기 ▪ 서로의 작품 감상하기 	26-29
8. 색의 기능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색에 관하여 알아보기 ▪ 여러 가지 색으로 표현하기 ▪ 서로의 작품 감상하기 	30-33
9. 알리는 것 꾸미기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리는 것 꾸미기에 관하여 알아보기 ▪ 알리는 것 꾸미기 ▪ 서로의 작품 감상하기 	34-37
10. 새로운 공간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 주변의 공간 살펴보기 ▪ 주변의 공간 꾸미기 ▪ 서로의 작품 감상하기 	38-41
11. 전시회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회에 관하여 알아보고 계획 세우기 ▪ 전시회 준비하기 ▪ 전시회 작품 감상하기 	42-45
12. 현대미술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대 미술의 특징 살펴보기 ▪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감상하기 ▪ 작품 모음집 만들기 ▪ 새로운 표현 방법 탐색하기 	46-48
계	64		48

*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미술과 초등학교 6학년 교사용 지도서

6) 회화의 영역

“일반적으로 표현되는 소재”¹⁹⁾에 따라 회화는 다음과 같이 8가지로 분류해 본다.

(1) 회화의 영역

① 산수화 - 넓은 의미의 풍경화로 동양화의 화제이다. 산수, 수석 등 자연의 경치를 그리는 것으로, 풍물로서 인물, 누각, 풍속 등이 포함되며 사계절로 짝을 맞추는 경우가 많다.

② 인물화 - 회화 작품에서 인물이 주제로 그려져 있는 작품의 총칭으로서 서유럽 회화의 역사는 인물화가 중심이 되어 발전 했다고 할 수 있다. 표현의 목적과 재용에 따라 초상화, 신화화, 종교화, 역사화, 풍속화, 나체화, 기록화, 풍자화, 전쟁화 등으로 분류한다.



③ 화조화 - 꽃과 새는 풍월과 함께 자연의 정취를 대표한다는 뜻에서 아취 또는 풍류를 상징하는 동양화의 대표적인 화제 중 하나이다.

④ 종교화 - 종교상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그림으로 예배, 기원의 대상으로서 초월신의 상은 물론, 그것을 안치하는 교회나 사원의 당내 장식이나 의식 용품 또는 표교나 교화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각종의 그림이 포함된다. 원래 그림의 발생과정은 종교 감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미개 민족의 원시미술 이래 그림은 종교에 봉사하는 역할을 담당해 왔다.

⑤ 역사화 - 역사적인 사건과 인물을 주제로 한 그림으로서 넓은 의미로는 신화적, 종교적인 것, 또 전설에서 취제한 내용의 서술적인 것, 역사적 풍속화도 포

19) 김춘일, 미술교육론, 홍익사, 서울:1986. p.15

함 되며 때로는 작가와 동시대의 사건을 묘사한 것을 가리키기도 한다. 반드시 사실에 충실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기록화와는 구분되어야 한다.

⑥ 풍경화 - 풍경을 회화나 소묘 혹은 판화의 수법으로 사실적 혹은 양식화해서 표현한 그림으로 화가가 자연의 빛과 공기의 작용에 흥미를 가지고 객관적인 정경을 그린 그림이다. 자연을 직접 묘사하는 사생화도 포함되며, 인상파 화가들에 의하여 풍경화는 자연의 넓이와 주위와의 관계에 의해 공간감을 정의하는 구도법을 성립시키기도 했다.

⑦ 정물화 - 생활환경 속에 있는 화초, 과일, 야채, 식품, 기물, 악기, 생활 도구 또는 박재로 만들어진 어류나 조수 등 스스로는 움직이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일상 생활의 사물을 주제로 한 그림으로서, 그 시대 풍토, 민족정서, 전통을 엿볼 수 있고 아울러 인간의 생활과 취미를 느낄 수 있다.

⑧ 풍속화 - 일정한 사회 계층을 대표하는 사람들의 풍속, 취미, 일상생활의 모습 등을 주제로 한 그림이다. 다루어진 사람들의 계층에 따라 농민적, 서민적, 귀족적 풍속화라는 구분이 가능하지만, 내용에 따라서는 종교화나 역사화, 초상화 등과 명확한 구별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7) 회화의 내용 영역

일반적으로 초·중등 학교 교육과정에서는 미술의 장르, 즉 ‘표현형식’을 중심으로 하여 내용 영역을 구분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범주들은 회화, 조소, 디자인, 공예, 서예 등이다. 그 중 ‘회화의 내용 영역’²⁰⁾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상상화 : 기억화, 공상화, 환상화, 이야기 그림, 추상화, 소리 듣고 그리기 등이 여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사물을 직접 보고 그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심상

20) 김춘일, 미술과 교육론, 을지출판사, 1998, pp.178~179

적인 생각이 주가 되어 그리는 그림을 말한다.

② 사생화 : 인물, 동물, 풍경 등을 직접 보고 형, 색의 특징을 중심으로 각자의 심상을 가미하여 그리는 그림이다. 사생화에서는 스케치(Sketch) 또는 데생(Dessin), 대상을 세밀하게 그리는 정밀 묘사도 포함된다.

③ 판화 : 화명에 직접 그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면에 새기거나 그려서 옮겨 찍는 그림을 말한다. 판면의 구조로 볼 때는 볼록 판화— 오목 판화, 평판화, 공판화 등이 있다.

8) 교과서에서 회화영역의 주요 소재 분석

제 7차 미술교과용 도서의 편찬의 유의사항으로 “가능한 학생들에게 미적 체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자료를 도입 부분에 제시한다. 자료는 우리나라의 작품 또는 사진 자료를 우선한다.”²¹⁾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렇게 미술 교과서에 제시된 학생 참고작품 또는 감상 작품들은 동기 유발을 위한 미적 체험 영역의 자료로서 활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자료는 아동의 실생활 경험과의 자연스러운 연결로 이어져 미술 표현의 문을 열어 줄 수 있다. 그러므로 교과서 작품의 활용에 있어 제시된 작품들의 소재를 분석하고 연구하는 것은 기본적인 사항이라 볼 수 있다.

<표 3>은 초등학교 미술 교과서에 제시된 작품들 중 회화영역의 소재를 분석하여 정리한 것이다. 인물, 집, 자연, 교통수단, 동물, 놀이, 물건, 포스터, 비구상의 9가지로 분류하였으며, 총 소재종류는 62가지이다. 5학년은 42가지, 6학년은 33가지이며, 공통소재는 16가지이다. 표를 통해 뚜렷하게 보이는 현상은 아래와 같다.

첫째, ‘인물’과 ‘자연’의 소재가 5학년이 되면서 반으로 줄어들고 있다.

21) 교육인적자원부 (2002), 전제서 p.26

둘째, ‘교통수단’의 조세의 양이 극히 적으며 그 내용도 자전거와 수레로 일반화된 교통수단과 거리가 멀다.

셋째, ‘동물’과 ‘물건’의 소재는 6학년이 되면서 3배정도로 비중이 늘었다.

넷째, 6학년이 되면서 포스터가 등장하고, 비구상 작품이 많아졌다.

<표 3> 교과서 참고작품의 소재 분석

소 재	분 류		5학년	6학년	계
인물(친구, 선생님, 이웃, 이야기 속 인물, 손)			24	12	36
집(아파트, 이층집, 기와집, 학교, 교실, 건물, 원두막, 창문, 담)			10	10	20
자연(식물, 나무, 산, 열매, 과일, 바다, 논, 밭, 호수, 별, 구름, 시냇물, 폭포)			42	20	62
교통수단(배, 자전거, 수레)			4	2	6
동물(새, 소, 호랑이, 오리, 염소, 물고기, 닭, 갈매기, 상상의 동물)			3	10	13
놀이(불꽃놀이, 탈춤, 꼭마단, 연날리기, 아이스하키, 민속음악놀이, 달리기, 줄다리기, 놀이터)			7	4	11
물건(붓, 망태기, 그릇, 병, 의자, 풍선, 필기구, 책, 태극기, 선풍기, 주전자, 컵)			3	12	15
포스터			-	3	3
비구상			2	10	12

*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미술과 초등학교 5, 6학년 교과서 (2002)

<표 4> 교과서 회화작품의 주요소재에 따른 분류

구분	인물		풍경		정물		계	
	N	%	N	%	N	%	N	%
5학년	10	32.25	9	29.03	12	38.70	31	99.98
6학년	9	50	6	33.33	3	16.66	18	99.99
계	19	38.77	15	30.61	15	30.61	49	99.99

*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미술과 초등학교 5, 6학년 교과서 (2002)

<표 4>는 회화의 내용영역을 참고하여, 초등학교 고학년 미술과 교과서에 제시된 회화작품을 추출하였으며, 추출한 ‘회화 작품’²²⁾을 주요 소재에 따라 인물, 풍경, 정물화로 분류한 것이다. 교과서에 제시된 회화 작품들은 대부분 이 3가지 영역에 속하고 있으며 이 영역에 속하지 않는 기타 비구상 작품, 포스터 등은 본 연구에서 자세히 다루지 않았다.

5, 6 학년을 합하여 인물, 풍경, 정물의 비율은 30%대로 비교적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5학년보다 6학년에 와서 인물의 비중이 커지고 상대적으로 정물의 비중이 줄었다.

교과서의 회화 표현 영역에서는 학습자가 평소에 본 것, 느낀 것, 상상한 것, 등을 표현함에 있어 창의적으로 나타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며, 아동들의 관심과, 흥미 수준에 알맞은 표현 활동이 이루어져 있으며, 또한 내용 수준은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표현활동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표현 활동의 주제는 표현에 따른 자유롭고 다양한 표현으로 전개 된다.

그러나 교과서에 소개된 활동은 학교의 상황이나 여건, 환경이나 계절에 따라 재구성하여 수업을 전개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따라서 교과서를 재구성할 때 학습목표에 맞는 단원의 양을 정하고, 학습량이 많을 경우 협동 제작이나 도화지의 크기를 적당하게 조절하여 적절한 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2) 교육인적자원부, 5, 6 학년 미술교과서, 2002.

IV. 결 론

아동화에서 여러 가지로 표현되는 양상을 이해하려고 한다는 것은 곧 아동화를 이해한다는 것이다. 이해를 기본으로 할 때 아동들의 정서에 동감할 수 있으며, 좀 더 그들의 세계에 가까워지는 기회가 될 것이다. 오늘날 교육 활동에 있어서 미래 사회를 구성하는 아동들을 올바르게 키워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로 보는 가운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미술 활동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즉 미술교육은 올바른 인간, 풍부한 인간성을 길러주는 장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여러 문헌과 기타 관련 자료의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전반적인 아동미술교육의 의의와 미술교육에 있어서의 회화의 특성을 살펴보고, 아동화의 발달단계의 여러 연구를 서술해 보았다. 그리고 본 연구의 주요 대상인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 회화의 특성과 활동영역과 그 지도 방향등을 제시해 보았으며 또한, 교과서를 중심으로 회화 영역의 소재 분석을 해 봄으로써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들이 신체적 감각의 성장과 지각의 발달에 미치지 못하는 표현에 대한 욕구와 불만을 다소 해소하여 다양한 회화 영역을 접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주제와 재료 기법에 따른 활동 영역을 제시하고 그 지도법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교과서의 그리기 영역을 분석하여 학년별 소재의 변화를 경험함으로써 아동들의 정서의 변화를 유추 할 수 있었다.

특히 고학년 시기의 아동들의 미술 지도 교사는 전반적인 사전 지식을 바탕으로 나아가 창의적인 표현 활동을 제시 한다면 이 시기의 아동들의 흥미를 충분히 자극하여 개성적이고 다양한 미술 표현을 적극적으로 접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 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아동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각기 다른 표현이 나오면서도 보편적인 흐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시기별 특징이 부분적으로 개인적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표현되어지는 활동이 공통적이다. 그러나 미술 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창의적인 주체인 개인을 발달시키는 교양적 역할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아동들에게 지속적인 자극을 주어 창작의 동기와 의지를 부여해 주어야 할 것이다. 아동미술교육은 미적 감각을 기르고, 정서성을 풍부하게 하며, 창의성을 기르고, 독창성을 기르며, 표현력을 기르고, 잠재력을 개발시키고, 재료 지배능력을 기르며, 합리적 생활태도를 기르는데 그 목적을 둔다.

또한 제 7차 교육과정에서는 “미술 활동을 통하여 표현 및 감상 능력을 기르고, 창의성을 계발하며, 심미적인 태도를 함양 한다.”라고 제시되어 있다. 아동 미술교육은 전인적인 인간을 육성하는데 미적 가치관을 두고 있다. 즉 미술을 통한 조화롭고 질서 있는 인격형성을 그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아동 미술 교육은 각각의 개인마다 개성을 존중하며 오감을 통한 그 표현과 미적인 감성의 영역을 확대 주어야 한다.

이렇듯 아동 미술교육은 정신적, 신체적인 모든 면의 바람직한 성장에 가장 큰 도움을 준다. 따라서 올바른 아동 미술 교육은 단지 교육의 수단으로써 아니라 보다 건전하고 건강한 인격 형성에 그 가치와 목적을 두어야 할 것이다.

미술 교육은 표현능력이나 작품 제작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미술을 통해 자아를 확립하고 그 과정에서 창의성을 계발하며 정신과 육체의 조화로운 인간을 기르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론과 실체가 함께 할 수 있는 미술 활동이 연구되어 져야 할 것이다.

미술교육의 가치는 단지 교과과정의 과목으로서가 아니라 생활의 전반에 바탕이 되어 긍정적이고 고유한 문화를 생성하는 시작점으로 보아야 할 것을 강조한다.

참고 문헌

- 교육부 (2002), 교사용지도서 5학년 미술, 대한교과서(주)
- 교육부 (2002), 교사용지도서 6학년 미술, 대한 교과서(주)
- 권상구 (1987), 아동미술실기 교실, 서울 미진사
- 김삼랑 (1994), 미술교육총론, 미진사
- 김삼랑 (1992), 미술교육개론, 미진사
- 김 정,(1991), 아동의 미술 교육 연구, 창지사
- 김 정 (1994), 세계의 미술 교육, 예경
- 김 정(1994), 미술 교육학 원론, 예경
- 김 정 (1997), 미술 교육의 모든 것, 예경
- 김춘일 (1993), 아동 미술론 , 미진사
- 김혜숙 외 (1998), 미술 교육학 원론, 예경
- 나병술(1969), 아동발달, 대학출판사
- 린스트림.M(1972), 아동미술의 세계, 김 정(역), 서울, 열화당, 1980
- 박주영. 조영동. 황교영. 안종고(1986), 미술교육, 형설출판사
- 백승길 · 이종승 역 (1997), E.H.곰브리치, 서양미술사, 예경
- 세계미술대사전 (1992), I, II, III, IV, V, 서울:한국미술감사
- 서울대학교미술교육연구회(1993), 로웬펠드, 브리테인, 인간을 위한 미술교육
- 염태진(1968), 교육미술, 서울, 신구문화사
- 오정현(1989), 아동미술, 서울, 형설출판사
- 윤양희 외 (1989), 교육과정해설, 서울, 교육과학사
- 이규선 외(1994) 미술교육학 개론, 서울, 교육 과학사
- 이종학(1978), 어린이 미술교육1 이론편, 서울, 미진사

E. P. 코헨, R. S. 게이너(1992), 아동미술교육의 실제, 서울, 미진사
차동채, 김춘일 (1988), 아동미술교육의 실제, 서울, 미진사
최재영 (2001), 미래를 키우기 위한 아동 미술 활동의 지도와 이해, 창자사

<학위 논문>

고숙자(1994), 초등학교 미술과 교육과정 고찰을 통한 회화지도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종신(2004), 초등학교 미술의 표현 방법 연구, 인천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혜옥(2002), 초등학교 미술 교과서 분석 연구,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노성환(2004), 형태지각 지도자료 적용을 통한 회화 표현력 신장, 전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류원호(2002), 창의력 신장을 위한 다양한 회화 표현 기법에 대한 연구, 목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오문근(1980), 아동 발달단계에 따른 그림표현의 분석적 연구, 이화여자 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장지현(2003), 초등학교 고학년 회화에 나타난 소재 비교 분석, 청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Abstract

Study on Paintings in Art Education through Curriculums

-Focusing on the 5~6th graders-

Yang, Young-Shim

Art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Park, Sung-Jin

Fine arts plays its own unique role among other types of arts when emotions, feelings, and thoughts are expressed and developed while creating and performing. It reflects the culture of the present and the past and contributes to the development of the future. Today's rapidly changing society and culture require development of creativity and comprehension of diverse cultures. Therefore, the purpose of the art education should be to make children interested in art and learn to be creative not only in school but also in the real world in order to have the ability to prepare and cope with the future wisely by developing their whole personalities.

However, while children grow mentally and are able to appreciate things better, they have not learned how to express what they see and feel physically or artistically. As a result they are not able to visualize what they

want or feel and they get frustrated performing in art class. This means the original purpose of art education has been fainted after the malpractice of art education in school in which compulsory education has been emphasized.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help children in art class to benefit from better organized curriculum with proper mixture of art theories and actual practice.

This paper is based on a number of other theoretical and academic background and includes general meaning of art education in primary schools, the merits of fine art in education and different development stages in children's art that have been studied.

After that, I focused on the characteristics and the ranges of art activities for 5 to 6th graders later in the paper. With the information gathered I would like to present desirable art courses for the targeted group of students.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2006. 8.